朝鮮日報
夕刊 十日(月)
本紙朝夕刊十二面

斷乎抗日政權根絶의 根本方針決定

十日政府正式態度決定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九日午前의 大本營連絡會議에 繼續하야 午後二時부터 首相官邸에서 緊急閣議를 열고 連絡會議에서 決定한 對支根本方策에 對한 內容을 根幹으로하야 愼重히 審議한結果 支那에잇는 抗日政權의根絶을 期하기로되야 三時間에亘하야 意見을 交換한後 이에完全히 意見의一致를 보게되엿다 다음 近衛首相은 同五時半부터 繼續하야 內閣參議의 參集을 要求하야 同問題에 對하야 各參議의 忌憚업는 意見을 聽取한結果 十日臨時閣議에서 九日의 閣議에서된 抗日政權根絶方策에 關하야 政府의 正式態度를 決定하기로되엿다

【東京電話同盟】帝國政府는 新對支根本方策으로 今次事變을 契機로 東洋平和의 百年大計를 樹立하기爲하야는 如何한 困難도 排除하기로하고 萬般準備를 進行하여왓는데 그後 國民政府는 繼續하는 敗戰에 士氣沮喪한 國民의 興望을 維持하기爲하야 마치 我國이 어떤提議를 한것처럼 內外에 宣傳하야 이른바『和平』放送을 하고잇스므로 六日의 四相會議에 繼續하야 九日 大本營과의 連絡會議와 緊急臨時閣議에서 斷乎 抗日政權을 根絶할 方針을 決定하고 그實現에 向하야 邁進하기로되야 十日에 다시 臨時閣議를 열고 이方策의 實現에 關한 一切의 準備를 完了한後 大體로 今週中에 御前會議를 奏請하야 帝國의 最高方針을 決定하고 그結果 境遇에따라서는 我國의 態度를 中外에 宣明하기로되엿는데 이는 國民政府의 態度를 監視하고잇는 我國이 結局 國府에 對하야 最後의 決定을 한것으로 매우 重視되고잇다

閣僚意見一致 風見書記官長談

【東京電話同盟】九日臨時閣議終了後 風見書記官長은 左와가티 말하엿다
午前中의 連絡會議에서 一致한 政府와 大本營間의 意見에 基하야 支那에잇는 抗日政權의 根絶을 期할 方策에 對하야 三時間에亘하야 各閣僚間에 熱心으로 檢討를 한結果 完全히 意見의 一致를 보앗스므로 政府는 午後五時半부터 參議의 參集을 要求하야 同問題에 對하야 意見을 聽取하엿는데 十日에다시 臨時閣議를 열고 最後의 決定을 할 豫定이다
閣議開會前 閣議에 提出하게하다는 言을 希望하고 여러가지로 意見交換을 遂하고 同三時散會하엿다

大倉男巴里到着

【巴里九日發同盟】國民使節 大倉喜七郎男은 九日午後 瑞西의 산모리스市로부터 巴里에 到着하엿다 大倉男은 巴里에 十八日까지 滯在한後 倫敦으로 向할 豫定이다

對支根本方策 委曲奏上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十日의 臨時閣議에서 抗日政權根絶實現에 關한 一切의 準備를 完了하기로되엿는데 右閣議散會後 近衛首相은 宮中에 參內하야 天皇陛下께 拜謁하고 九日의 大本營連絡會議와 臨時閣議와 十日의 臨時閣議에서 決定한 對支根本方策을 委曲奏上할 豫定이다

午後臨時閣議에서 對支重要方針決定

大本營과協議後

【東京電話同盟】抗日政權根絶에 關한 帝國政府의 對支根本方針을 決定할 十日의 臨時閣議는 午前十時三十分에 首相官邸에 開會 近衛首相以下 各閣僚 出席(有馬農相欠席) 爲先 新設厚生省에 關하야 十一時三十分까지 各般의 準備手續을 한다음 對支重要國策에 對하야 各般의 折衝이되고 正午에 一次休憩하고 午後一時부터 閣議를 再開하고 重要國策 正式決定을 하기로되엿다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十日의 臨時閣議에서 對支重要措置를 包含한 帝國의 重大方針에 關하야 前日에 繼續하야 여러가지 意見交換을 한結果 閣議案의 內定을 보앗스므로 午前十一時三十分부터 特히 古賀軍令部次長 多田參謀次長을 招치거 杉山陸相, 米內海相, 廣田外相, 風見書記官長, 町尻陸軍軍務局長等이 參集하야 同閣議案을 中心으로 거듭 愼重히 檢討를 한結果 兩次長은 一次 大本營으로 赴하야 統帥側의 意向을 모흔後 政府에 對하야 贊同의 意見을 表할터로 午後의 閣議에서는 大本營側의 意向을 옴겨 對支重要方針의 正式決定을 하기로되엿다

希臘皇儲 晋殿下御結婚式

【아테네九日發同盟】希臘皇儲 晋殿下께서는 前부터 英國하노-버家의 브란스윅·프레데리카 姬와 御婚約의 사이이시엿는데 九日午前을 期하야 아테네市의 由緒기픈 希臘正敎會大伽藍에서 古式에 依하야 壯嚴한 御結婚式을 擧行하시엿다

北京의各大學 近近開校

【北京九日發同盟】事變以來 休校狀態로되여잇는 北京各國立大學을 從速히 開校할것은 文化의 維持向上의 點으로보아 絶對로 必要한것이라하야 臨時政府敎育總長 湯爾和氏는 就任以來 熱心으로 復舊計劃을 進行하고 關係機關에 對하야 그具體策作成을 命하엿섯는데 近日成果를 엇게되엿스므로 國務會議의 議決을 經由하야 各大學師範學校를 開校하기로되엿다 同總長은 新政府가 文化를 尊重하는 方針을 闡明하기爲하야 十日午後四時부터 行政委員會終了後에 各國新聞記者團을 招待하고 說明을 할 豫定이다

企畫院參與會議

【東京電話同盟】今年最初의 企畫院參與會議는 八日午後一時半부터 企畫院會議室에서 瀧企畫院總裁로부터 企畫院에서 作成한 國力擴充四個年計劃原案을 說明하고 이에 對하야 各省에서 愼重檢討하야 原案을 作成한後 再...

川越駐支大使의 撤回論毅然擡頭

【東京電話同盟】抗日政權根絶에 關한 帝國政府의 强硬方針은 十日의 臨時閣議에서 正式決定을 보기로되엿는데 最近 諸般의 情勢에 鑑하야 上海에잇는 川越大使를 召還하라는 强硬論이 擡頭하야 그趨移는 매우 重視되게되엿다 即 我方은 事變當初부터 日滿支三國의 共同提携에 依한 東洋永遠의 平和確立을 希望하고 支那側의 反省을 要望한것이나 國府要人은 帝國의 이가티 公正한 眞意를 諒解치못하고 더욱 抗日侮日을 叫號하고잇스므로 我方으로서는 이以上 國府를 相對로할 必要가업고 따라서 川越大使의 上海駐在는 어見地에서 보면 無意味한것이라 하는데잇다 十日의 閣議에서도 右에 關한 檢討가될것이라는 觀測이 有力하다 (寫眞은 川越大使)

回回敎徒代表 新政權絶對支持

【天津九日發同盟】赤化防止와 友邦과의 提携를 標榜한 新疆, 靑海兩省 回敎徒 數百萬의 決意를 携行한 兩省回敎徒特派代表 馬冠舟氏는 昨八日에 天津에 到着하야 天津, 北京의 日支兩當局者와 會見하고 新政權絶對支持의 意를 表示하엿다

羅馬南米間 長距離飛行

【羅馬八日發同盟】伊國政府는 一月末 三機編隊로 羅馬, 리오데자네이로間 長距離飛行計劃을 세웟다

海軍航空精銳部隊 南昌을反復空襲

敵機四臺擊破코歸還

【上海十日發同盟】艦隊報道部午前十一時發表=海軍航空隊는 昨九日에 南昌飛行場을 空襲하야 敵一機를 擊墜하고 三機를 擊破하엿다

【上海十日發同盟】九日午後一時에 南昌을 空襲한 白濱, 蔡原兩海軍空襲部隊○○機는 我軍을 邀擊하여온 敵機 E十六型戰鬪機 三機와 南昌上空에서 空中戰을 演出하야 瞬息間에 一機를 擊墜하고 他의 二機는 唐慌히 遁走하야 我方은 悠悠히 目的의 兵舍 各軍事機關에 巨彈의 비를 나리어 多大한 打擊을 주엇다 또 三木千田兩空襲部隊도 때를가티하야 南昌의 上空에 나타나 敵의 各重要建物에 反復爆擊을 敢行하야 所期의 効果를 거두고 歸還하엿다

【上海九日發同盟】九日午後一時三十分 海軍航空隊精銳○○機는 南昌에 飛去하야 敵의 軍事要衝 南昌의 飛行場과 格納庫 兵舍를 爆擊하야 我方은 無事히 歸還하엿다

上海工部局問題로 英政府對策凝議

米佛兩政府와도協議

【華盛頓九日發同盟】英國外務省은 上海工部局에 對한 日本政府의 要求에 對하야 愼重히 檢討를 거듭하고잇섯는데 爲先 檢討를 終了하고 檢討書類를 週末에 閣僚에게 配布하엿다 上海에서 繼續하여 이러나는 不祥事件에 關한 公報는 繼續 外務省에 到着하야 체임벌린首相은 十日에 早速히 關係當局과 協議하고 또 八日에 歸國한 前駐支大使 휴겟센氏를 招請하야 當時의 事情을 聽取하고 다음 이던外相等 主要閣僚와 協議하게될것으로 觀測된다 政府는 二月一日의 議會開會까지에 極東問題로 적드라도 二回 閣議를 開催하야 方策을 協議할것으로 觀測되는데 工部局에 關한 日本의 要求는 直接 重大한 解決案은 아니나 트로이의 木馬로부터 무엇이 뛰여나올지 모른다고 念慮하고잇는 傾向도 보인다 政府는 目下 頻繁히 米佛兩國政府와 協議하고잇는데 上海의 不祥事件이 惡材料가되고잇슴은 確實하다

國府虛勢聲明

【上海九日發同盟】去六日 四相會議에서 發表된 風見書記官長의 談話에 關聯하야 國民政府代辯者는 七日 漢口에서 左와가티 聲明하야 아직도 國民에 對하야 虛勢를 보이고잇다
今次 日支交戰의 全機關을 通하야 支那側으로부터 和議를 請하야 한것과가튼 如何한 意思表示도 한일은 秋毫도업다

駐蘇支大使更迭

【莫斯科九日發同盟】駐蘇支那大使 蔣廷黻는 벌서 歸國하엿다는 一般의 觀測과달리 去六日에 漂然히 莫斯科에 歸還하엿스나 九日에 다시 莫斯科出發 巴里를 經由하야 歸國의 途에 올랏다 蔣大使는 巴里에 到着한後 飛行機로 支那에 向할터로 다시 莫斯科에 歸任치안흐리라 觀測된다 벌서 駐蘇大使館 參事官에 任命된 前駐滬外交部辦事處長 余銘이 代理大使로 莫斯科에 赴任途中이라고 傳한다

國府、金融機關에 利益自由處分禁止

【上海九日發同盟】國民政府財政部는 昨八日에 上海各銀行公會와 錢莊公會에 對하야 左의 命令을 發하야 各金融業者의 昨年度에잇서서의 利益金의 自由處分을 禁止하엿다
一、戰區內에 支店을가진 銀行은 昨年度의 純益金全額을 特別積立金으로 保護하야 時局安定을 보기까지 그處分을 行함을 不得함
二、戰區內에 支店이업는 銀行은 그利益金을 從來와가티 處分함을 得함 但 그一部는 될수잇는대로 特別積立金으로 保護하야 急用에 備할것
右命令은 될수잇는대로 銀行의 所持資金을 潤澤케하고 金融界의 破綻을 未然에 防止코저하는 目的에서 나온듯하나 그反面에는 對日長期抗戰을 當하야 今後 必要에 切迫한 境遇에 軍費調達을 容易케하려하는 策에서 나온것으로 觀測된다 그리고 銀行業者는 如斯한 大命令에는 매우 不滿한 模樣이다

國力充實에協力

南總督施政方針

長期에亘한 聖戰體制下에 堅忍持久의 精神力을 高揚함을 目標하고 帝國의 大陸政策遂行에 最前線의 使命을 重荷하고 前進하는 半島施政의 全面的飛躍에 備할 總督府의 根本方針을 去八日의 臨時局長會議에서 南總督으로부터 各局部長에게 그大綱을 闡明하야 可及的으로 速히 具體的立案을 命한바잇는데 南總督은 明十一日의 定例局長會議에서 右時局에 處할 施政의 大綱에 關하야 다시 이를 敷衍하야 半島現下의 施政各部門에 亘하야 具體的으로 自己의 腹案을 提示하야 各局課의 立案으로부터 그檢討를 要求할터이다 그리고 南總督이 披瀝한 戰時體制下에 遂行할 半島施政의 大綱은 施政의 五大政策을 根幹으로 다시 이를 推進强化한것으로 觀測되고 政府의 綜合的國力充實整備에 順應하야 半島가 그最前線的役割을 積極的能動的으로 進出할 精神을 根幹으로한것으로 觀測된다
一、國體觀念의 明徵과 國民精神의 高揚
一、敎學의 刷新擴充에 依한 人的資源의 充實整備
一、鮮滿一如政策强化에 基하야 對滿, 對北支의 關係를 緊密化하야 南總督의 所謂「北으로 西으로 前進」의 命令이되야 帝國國是의 前線에서도 兼하야 對外貿易의 伸張을 期할것
一、政府의 外地生産力擴充에 呼應하야 農工併進政策에 拍車를 더하야 半島生産力의 飛躍的伸張을 期할것
一、今次事變을 契機로 銃後半島民衆의 動向을 더욱 前進시켜 內鮮一體에 確乎不動하도록 함을 檢討할것
一、庶政의 刷新을 漸次遂行하고 官吏의 實務勵行을 보여 官民一體가되야 對內施設의 擴充을 期하야 民衆生活의 安定을 圖할것
等에亘한것으로 觀測되고 戰時體制下에 處하야 擧國一致的結束下에 半島의 軍事 産業 經濟等에 亘하야 半島未曾有의 整備充實이 漸次具現될것으로 期待된다 (寫眞은 南總督)

루마니아新外相 近近프라하訪問

【프라하八日發同盟】루마니아新外相 이스트라티·미세스코氏는 近近 프라하를 公式으로 訪問하기로되엿다 프라하各紙는 이는 루마니아가 小協商國間의 同盟關係를 依然尊重하는 證左라하야 大大的으로 歡迎하고잇다 이스트라티미세스코氏와 체코슬로바키야政府首腦와의 會談에서는 十七日開會하는 聯盟理事會對策과 匈牙利問題가 討議될것이라고 豫想된다

時事解說

中國共産黨

一九二○年 五六月頃 蘇聯의 복보로가 그政府의 命을 밧고 支那에 들어와서 그해 八月에 上海서 陳獨秀와 握手해 가지고 위선 中國社會主義靑年團을 組織하얏섯스나 團員間의 意見不合으로 一九二一年五月에 그團體를 解散하고서 十一月에 左傾分子만이 새로운 團體를 다시 組織하얏섯다。 그래서 一九二二年에는 벌써 中國共産黨이 組織되얏섯다고 하나 表面에까지 나타나지는 못하얏다가 一九二三年一月 蘇聯代表 요페가 共同宣言을 發表하자 비로소 勢力을 뻗치어 그해 七月에는 드되어 第一次全國代表會議를 열게까지 되얏섯다。
×
國民黨은 所謂 容共聯俄政策을 하야 共産黨은 國民黨과의 合作을 行하야 共産黨은 國民黨의 假面아래 着着 그黨勢를 擴張하게 되는中 一九二六年 蔣介石이 北伐軍을 이르키고 一九二七年 北伐軍이 杭州 上海 南京을 掠取하고 武漢에 이르자 蔣介石一派와 共産黨사이에 首領問題로 內訌이 생기되야 同年四月 蔣介石은 上海에서 右派를 糾合하야 共産黨對策을 講究하고 共産黨은 武漢에서 黨員武裝을 命한結果 드듸어 正面衝突이 일어나는 同時 廣東 武漢等 各地에서 여러차례의 무서운 殺戮을 되푸리하게 된것이다。
×
爾來 十年間 蔣介石은 反共政策아래 中國統一을 도모하고 毛澤東 朱德等의 共産軍은 根據地를 擴張하고 中國의 사이를 맴드러서 서로 大戰을 이루어 오러로 因하야 蔣介石이 共産軍討伐로 苦心努力한것은 말할것도 업거니와 그런데 人命과 財産도 宏壯한것이다。 蔣介石의 討共은 그곳의 根據地 瑞金을 빼아슴으로써 一段落을 지엇다하얏더니 意外 再昨年 西安事件이 일어나더니 蔣介石은 다시 年來의 仇敵인 共産黨과 握手하야써 抗日政策을 取하기에 이르럿든것이다 (完)

廣東廣西防備

新兵團의組織內容

【上海十日發同盟】廣東方面의 形勢가 切迫하엿다는 報道에 蔣介石은 共産廣東에 나아가 余漢謀를 督勵하야 그 備를 嚴重히 하엿는데 또 前第十六路軍總指揮 陳銘樞의 出馬를 要求하야 그部下의 將領으로하여금 新兵團을 組織케하고 廣東 廣西兩省에서 訓練中인 九萬의 新兵을 그配下에 屬給하기로하엿다 이에 集合한 將領은 第一次上海戰時에 日本軍에게 慘敗한 蔡廷鍇 蔣光鼐 區壽年 翁照垣等을 爲始하야 李濟深, 香翰屛, 葉挺等 有力한 軍閥도 잇고 또 共産軍閥將領도 參加하야 我中山水兵을 爲始하야 各邦人暗殺事件, 汪精衛暗殺未遂事件等의 首犯王亞樵도 또그部下를 引率하고 馳參하는等 雜軍의 色彩를 보이며 오는것으로 蔣介石은 右를『第十九路軍』이라 命名하고 그士氣를 鼓舞하리라 傳한다

中國共黨機關紙

新中國日報創立

【上海十日發同盟】漢口의 中國共産黨의 活動은 第七回全國大會를 目前에두고 漸次活潑하게 되야 九日午後에는 黨機關紙『新中國日報』의 創立式을 擧行하고 十一日을 期하야 同紙를 發行하기로되엿다 이式에는 王明, 秦邦憲의 二巨頭가 出席하엿는데『博古』의『펜네임』으로써 共産黨의 理論을 指導하는 秦邦憲은 左와가티 말햇다
新中國日報의 立命은 中國共産黨의 唯一의 擁護 機關紙 共産黨과 國民黨의 提携를 强化하야 全國的으로 對日抗戰을 擁護함에잇다

八面鋒

◇
聯盟理事會에서는 英佛兩國서 規約中 制裁規定을 廢棄하자고 提議햇다고。
◇
이서도 實効업는것을 두는것은 無用의 長物。
◇
그러나 威嚇的効果로는 多少有할가。
◇
長期抗戰에 對備할 兵稅 朝鮮에 實施될것도 疑心업다고
◇
對時局關係로 不得已한 事情일지나 民力을 萎縮시키지 안흘 程度로 함이 可。
◇
比律賓 遠征간 平壤選手, 阪神驛傳競技에 간 마라손選手, 氷上選手, 籠球選手 모다 勝勝의 榮冠。
◇
스포-츠朝鮮의 意氣軒昂。
◇
스포-츠뿐아니라, 美術에 音樂에 科學에 世界的人物이 날날은 언제?
◇
하로 속히 날사도 오늘부터는 涵養。
◇
一喜一憂의 輪運인가。

羅馬議定書

關係國會議開催

【羅馬九日發同盟】伊墺匈의 羅馬議定書關係國會議는 結局 十日부터 三日間 匈牙利의 首都 부다페스트府에서 開催될터인데 伊太利로부터는 차노外相 墺太利로부터는 슈니크首相 匈牙利로부터는 다라니首相等이 出席할터로 最近 루마니아新內閣成立과 同時에 다뉴브地方의 形勢가 變化한이때 伊太利側에 有利하게 會議의 趨移는 極히 注目된다 羅馬政界의 觀測에 依하면 차노外相은 부다페스트會議에서 墺太利, 匈牙利兩國에 對하야
一、프랑코政權의 承認
一、獨伊兩國이 新年度에서 提唱한 各種協定의 主旨
一、對聯盟態度의 再檢討
一、日獨伊防共協定에의 參加
를 勸告할터이라고 傳한다 그리고 차노外相은 이機會를 利用하야 墺太利, 匈牙利兩國과 다뉴브沿岸諸國과의 關係調整에 對하야도 斡旋할것으로 觀測된다

루마니아, 체코 兩外相會談注目

【프라하九日發同盟】체코슬로바키아를 訪問하는 루마니아新外相 이스트라티·미세스코氏는 九日午後五時二十五分에 프라하府에 到着하야 크로프다外相以下 官民多數의 出迎을 바덧다 미세스코外相 今回의 訪問은 來十七日에 開會하는 聯盟理事會에 對한 策과 西班牙問題等을 討議하기爲함인데 小協商의 危機가 傳하는 이때 兩外相의 會談은 注目된다

新嘉坡에서 支那人抗日暴動

【新嘉坡九日發同盟】新嘉坡在住支那人은 九日 印度에잇는『印度救國데이』와 相呼應하야 朝來로 不穩한 形勢를 보이고잇섯는데 城內의 支那群衆은 共産黨과 抗日團의 使嗾下에 九日 新嘉坡市內에서『支那救國데이』의 一大示威運動을 이르켜 一大氣勢를 보엿다 熱狂한 支那群衆은 漸次 暴動化하려는 形勢를 보엿스므로 當局側은 警官隊를 急遽出動케하엿스나 마침내 雙方間에 激烈한 爭鬪를 反復하야 多數한 負傷者를 내인後 多數한 暴徒가 檢擧되엿다 이에 憤慨한 支那人은 九日에 檢擧된 同胞를 奪還코저 中央警察署에 몰려가 同署背後의 支那街 南天街附近을 通行中인 電車를 襲擊하야 乘客全部를 下車케하는 同時에 때마침 車中에 잇든 日本人 三名을 毆打하엿다 一名은 電車의 窓으로부터 내려뛰여 逃走하엿스나 他二名은 行方不明이되야 安否가 念慮된다 襲擊된 邦人三名은 沖繩縣人漁夫二名의 前濱某 丸代某 熊本縣人中村某 一名으로 判名되고 一方 暴徒는 深夜에 이르러 마츰내 鎭壓되엿스나 附近의 道路는 電車의 破片이 散亂하야 慘狀을 呈하고잇고 市內의 民衆은 支那人의 暴行에 戰戰兢兢하는 狀態이다

獨逸보레氏 부다페스트訪問

【伯林八日發同盟】나치스黨外國組織委員長 보레氏는 匈牙利外相 데·카냐氏의 招待를 밧고 來二十一日 부다페스트를 公式으로 訪問하기로되엿다 同氏는 부다페스트에 四日間 滯在하야 匈牙利首腦와 會談할터인데 보레氏의 匈牙利行은 時期가 時期인만치 注目된다

人事·集會

▲鹽原學務局長은 朝鮮敎育令改正에 關하야 議會方面에 說明次 十日午後二時三十三分發 노조미로 渡東
▲穗積殖産局長 木野鑛山課事務官、村上同理事官을 帶同 産金會社에 對하야 中央과 折衝코저 二週間豫定으로 十日午後四時十五分發 渡東

靑島陷落

【天津十日發同盟至急報】十日早曉 靑島에 敵前上陸을 敢行한 海軍陸戰隊는 靑島總攻擊을 開始하야 市內에 突入한結果 靑島를 防衛하고잇든 支那軍은 抵抗을 試치안코 그대로 逃走、玆에 靑島는 마침내 我軍에게 陷落되엿다

讀嘆!感激!本日一面白いキング二月號の大讀物

面白い!これぞ興味の最絶頂
現代小説 愛怨經
美しき處女、淸い青年 どんな恐ろしい運命が彼等を待構へてゐたか?
…新鮮でピチピチした處女のやうな少女ナオミと純情の青年… 併しナオミには恐しい悪魔が手を伸べてゐた—— 果然大波瀾起る!

キング二月號で大評判の大傑作
立身出世繁榮大特輯
見よ、この實例!而して幸福を掴め
▲二職工から一千萬圓の大社長 ▲病苦貧苦と戦って遂に寄合員… ▲二十五歳で醫學博士に ▲夫婦協力で… 人生至る處に立身出世繁榮の途あり…

支那事變大特輯
▲支那事變大畫報 ▲上海南京戰線壯烈實記 ▲北支戰線壯烈實記 ▲山西戰線從軍撮影行 ▲事變ニュース映畫撮影の大冒險座談會等々。

相撲大特輯
▲人氣花形の結婚ロマンス…▲人氣花形の出世ロマンス… ▲花形力士の美談逸話珍談奇談 ▲美人連が語る花形力士 ▲褌かつぎの内幕話いろいろ! ▲何でも分る相撲物識帖 等々相撲のこと、が一切判る面白い大特輯

滑稽讀切小説傑作集
▲快笑哄笑 戀の劇作家…佐々木邦 ▲諷刺諧謔 喧嘩マニヤ…今井鐘三 ▲珍趣無類の戀物語 飴ん棒と戀…鹿島孝二

讀切小説傑作選
▲感動感激 江戸の雪…邦枝完二 ▲殉情切々 妹の淺黃服…竹田敏彦 ▲涙の哀話 悲戀女仁義…山岡莊八 ▲怪奇探偵秘話 猿と死美人…横溝正史 ▲痛快無双 劍豪秘話 算盤劍術…湊邦三

大長篇傑作揃ひ
▲時代小説 浮名紅梅…川口松太郎 ▲股旅小説 駒下駄道中…原巖 ▲現代小説 日本の妻…竹田敏彦 ▲時代小説 魔粧佛心…吉川英治 ▲怪奇探偵 大暗室…江戸川亂歩 ▲現代小説 本町小町…神田越山 ▲大岡政談 薔薇競技…細田民樹 ▲現代小説 乳房祭…小島政二郎 ▲滑稽小説 青春オリムピック…中野實

キングにはこの外大讀物澤山
大賣行 今スグお求め下さい
東京小石川 振替東京二九三〇 大日本雄辯會講談社

普校入學週期恐慌

今年도

收容不能兒三千五百

市內廿九個公立普通學校

十五日부터願書接受開始

오는십오일부터 이월팔일까지에 경성부학무과에서 부내이십오개의 보통학교와 작년도에신설경정된 두학교와 십사년도에 시설될두학교 전부이십구개공보의 입학원서를 접수하게되엿다 교육기관의부족으로 인하야 해마다 우리어린이들의 차마볼수업는수험관문이 그부형들의 초조한가슴과함께 금년에도 역시눈앞에 버러지게되엿다 금년에는 부내각정총대(町總代)가 입학원서를 수리하야 가지고 동리별로 호적을대조하야 경성부와 그출장소로 제출하게되엿다 이리하야 각정총대가 정리하여온 입학원서를 경성부 호적과에서 각동리별로 사정하야 학무과로 돌려각교에 배정하게된다 금년입학년령은 일곱살로부터 아홉살인데 소화오년사월 이일생으로부터 소화칠년 사월일일생 까지이라고한다 그리고 작년에신설된청량(淸涼)과 서강(西江) 두곳에는 아직교사가 업슴으로 『청량』은 인현(仁峴)공보에서 『서강』은 아현(阿峴)공보에서 교실을 대용하리라고하며 금년도에 신설될 영등포(永登浦)방면과 신당정(新堂町)방면의 두학교는 지원자 배정여하에 따라서 그대용교사를 작정하리라고한다 금년 모집하는 이십구개공보의 수용인원이 칠천사백사십사명이고 사립십팔보교의 수용력이 일천이백오십명인데 적령아동이 일만이천백구십일명에 달함으로 삼천오백구십칠명이 금년에도 학교에 입학할수업게될터이다

北支新市場으로

朝鮮商品宣傳에躍起

支那語로만든朝鮮事情도紹介

宣傳映畵字幕도支那語로

약진도상에잇는 조선산품의북지(北支)진출을 적극화식히고자 총독부에서는 조선내 각관계업자와제휴하야 명년도부터 (오는사월부터) 북지각지에 조선산품견본시(見本市)를 개최하기로되엿다 이에딸하야 조선산품과 조선내사정을 일층주지철저식혀서 최인상 가장효과적으로 되게하기위하야 종래방문(邦文)만으로 인쇄하든 조선산품명칭과 조선내 사정선전의인쇄물을 지나어(支那語)로 번역인쇄케하기로방침을결정하야 방금착착 준비중이다 또이와동시에 조선사정선전소개에 중요한 역할을하고잇는 총독부 제작영화 『밀림』의자막도 지나어로번역하야 삽입하기로되엿다

各地古蹟名所에

石標를製作建立

총독부에서는 각도소재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을 보존키위하야이것을 표시할석표(石標)를 제작하야 각처에 세우기로되엿다는데 이석표제작 개수는 경기도가삼십이개 충북이십삼개 충남이이십오개 황해도가 십오개 경남이이십일개 전남이 이십륙 … 한 비용예산서를 지급히 제출하도록 각도지사대중에통첩하얏는데 경기가 일백구개 경북이 십일개 … 오게 강원도가 십구개 함남이 칠개 함북이 … 이게이다 그런데석표는위선이상의 것만제작하야 세운후 도다시추후하야 전조선의 지정기념물에 도전부 제작하야 세울계획이다

오랫만에四溫日! (오늘창경원에서)

新正마즌法廷에

破鏡嘆願三題!

騷亂한世相은法廷으로부터

정초기분이 아직까지도안흥정 월초칠일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에는 남편이안해를걸어 또는안해가 남편을걸어 리혼을 청구한것과 검사정(檢事正)을 상대로 리혼게출무효확인(離婚屆出無效確認)을 청구하는등 리혼에관한 소송 석장이 제출되야 무엇보다도 먼저 리혼으로부터 시작되는감을 주는동시에 듯는사람으로하여금 인간사회의 복잡한 리면상을 새삼스러히 한탄케한다

◀평양부 신리(新里)구십삼번지 리룡녀(李龍女)는 경성지방법원검사정을 상대로 칠일 경성지방법원민사부에 경성부창신정(昌信町)륙백십오번지 고조석구(趙錫九)가 원고를 상대로 재작년일월십일일 강원도 영월군 량변면장 엄경렬(寧越郡兩邊面長嚴敬烈)씨에게 제출한 리혼게의 무효를 확인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엿는데 소장을 보면 소외 조석구는 대정원년에 원고와 결혼하야 이래 가티 자미잇게 사러오든중 그는 재작년 일월십일일에 원고가 몰르게 원고의 도장을 위조하야 원고와의 리혼하는 모양의 리혼게를 천기 량변면사무소에 제출하는동시에 량변면주천리(酒泉里)로부터 부내창신정 륙백십오번지로 본적을옴기는후에 작년십일월륙일에 이세상을 떠낫는데 이리혼게는 원고가 아지못하는 사이에 고조석구가 위조게출한 것이니 공공의 리익을 대표하는 검사정은 이게출의 무효를 확인하라는것이다

◀부내인의정(仁義町)일백륙십일번지 안씨(安氏)는 그의남편 인 강원도원주군 귀래면월포리 (原州郡貴來面月浦里) 박순석(朴順石)을상대로 칠일 경성지방법원민사부에 리혼청구소송을 제기하엿는데 청구하는리유는 원고는피고와 지금으로부터 삼십이년전인 명치사십년에 결혼하야 사러오든중 피고는 생활난으로소화사년륙월십오일경에 멀리북해도(北海道)탄광으로 버리를 간다고 나간후에 이래구년이되도록 한번도 소식이업을뿐만아니라 아모리 그의소재를 알기위하야차저보아도 생사를 알수업스니 그와리혼하도록하여달라는것이다

◀경기도 포천군 청산면 덕둔리(抱川郡靑山面德屯里)김기석(金己石)은 그의안해인 경기도 련천군 백학면 학곡리 (漣川郡百鶴面鶴谷里) 박립분(朴立粉)을 상대로 역시칠일 경성지방법원에리혼소송을 제기하엿는데 소장을보면 피고는 원고와 소화사년삼월에 결혼하야가지고 잘사러오든중 재작년 이월에 친정으로 다니러간다고 간후로 도러오지 안하는데 그사이에 그근동류(柳)모와 불의의 씨까지낫스니 이가튼 부정한 녀자와는가티 살수업는즉 리혼케하여달라는것이다

見敗鄕客의猥狽

팔일아홉시반열차로서 충북청주군남이면척북리(淸州郡南二面尺北里) 이십오번지 김칠회(金七會)(二二)는 경성역에서 룡산역까지 가는도중에서 사십세가량된 사나희두사람한테서 『사기』에 걸여 시골서가지고 올너온 돈백십원을 이저버렷다고 종로서에 계출하얏슴으로 동서에서는 소관룡산서에 이첩하야 범인을 찻는중이다

動員勞働者卅五萬

現地定着을斡旋

勞働夜學等社會事業的機關을設置

未曾有의"勞働豊年"

소화십이년도의 조선토목공사비는 관공영에한것만도 일억팔천만으로 미증유의 대팽창을 보게되엿음에딸아 로동자의 동원도 또한 굉장한바잇섯는데 금십삼년도에는 작년도의 배가량인약 삼십오륙만명을 요하게되어서총독부 사회과에서는 지금부터그알선에대하야 머리를 앓고잇다 이것은 작년도토목공사비 일억팔천만원중에서 로동 부족과청부업자의 준비불급기타 여러가지 관계로 겨우 구천만원어치박게 진행하지못하얏슴으로 나머지 구천만원어치 토목공사가 금년으로 너머오는동시에 금년도 토목공사가 또한팽창하야전부약이억오천만원가량에달할모양으로 이것은전부 시국관계상천연할수업는 사업임에따러 이에공급할로동자도 로동자의 취직보다는 사업수행을본위로 알선하여야만 될형편이다 그리하야총독부사회과에서는 로동자 공급에만전의책을 다하기위하야 공사현장에교육기관기타 사회적시설을 완전히하야 로동자로하야금 공사시간까지정착하도록 할방침으로 금년도예산에 상당한 예산을 요구하얏든바 재무당국의 물리침을 당하야 현재예산은겨우 작년으로부터 너머온 약십삼만원밧게 업는데 이것을가지고는 도저히 미증유의 대량 로동자를 동원식힐수가 업슬뿐아니라 공사현장에 로동자로하야금 안정할만한 시설을할수가 업스므로 미리대장성(大藏省)당국의 량해를 구하야가지고 약 이백만원을 추가예산으로 요구할터이다

非時局的不急起債

全面的으로否認

學校建築과各種土木事業에亘하야

極端的制限의要項을發表

현하시국대책으로서 소화십삼년의 도、부、읍、면(道、府、邑、面)또는 학교조합의 기채인가에 관하야는 전번에 각도에 통첩한바잇거니와 다시 십삼년도(오는사월부터)이후 기채에관하야도 다음과가튼요항으로부터 사정하기로 방침을결정하야 십일 각도에 통첩을 발하엿다

◇기채사정방침

一、교육사업

(가) 학교건축은 견고제일로하야 미관을피하며 최저의사용을 되도록또한피하야 최소한도의 필요에그치도록할것

(나) 학급증가의계획을 회피한것으로 건축의양식、재료、구조등 소위기술상 혹은 경비에의하야 필요잇는경우에는 이삼년도분의건축을 인정할수가잇다

(다) 강당、우천체조장의 신축은 부득이특수사정이잇는것이외에는 원측적으로 인정치안흘것、

(라) 부、읍조제지 초등학교의특별교실은 보통교실이여유잇스면 이것을 대용하야 건축의연기를하도록할것 단 학급정원기타 특수의필요한경우에는 심상학급까지는삼학급이내로하야 특별교실의건축을 인정할수잇다

(마) 학교용지의 매수는 건축기지와 운동장이외에는 원측적으로 인정하지안흘것 단 도시부근의학교는 지가등의관계로 건축의전년도 또는 수년도전의매수를 인정할수잇다

(바) 학교의이전 개축은 절대적으로필요한구체적 사유가 업는 한도에서 원측적으로 인정하지아니할것

二、토목사업

(가) 토목사업 최근시국에 비치워 국방상의 긴요한것 또는정부에서 시국에비치워 생산력 확충에 노력하고잇는 인조석유、제철、산금、전력개발、통신관계기구에 필요한것의 의외에는 원측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할것

(나) 도로포장사업은 원측적으로 인정하지아니할것

(다) 교량공사 교량신설은 도로와 가트며 개가(改架)공사는되도록 그시행을 연기할것

(라) 항만사업、매립사업 시국에비치워 긴요한것이외에는 원측적으로 인정하지아니할것

(마) 상수도 상수도 신설공사는 정부가 장려하는 공업용수로서 공급하는등 시국에 긴요한것이외에는 인정하지아니할것

(바) 하수도공사 하수도공사는 부득이한최소한도의 공사로 경비다액에달하지안는것이외에는 인정하지아니할것、

(사) 토지구획정리 시가지계획에의한 공사시행명령이 잇는것이외에는 원측적으로 인정하지아니할것、도시계획명령잇는것이라도 보류이 한것에그치는등 적당한조치에의하야 되도록 기채액을감소케할것

(아) 건축공사 관청청사、숙사(초등학교숙사를제함) 기타공사는 원측적으로 인정하지아니할것

(자) 자동차사업 자동차의갱신은 원가소각적립금설정(元價消却積立金設定)에의할것이오 기타비용은 수입한도로할것

(차) 전항각호에의한 기채를 인정하지안는 사업이라도 사실상계속비용과 가튼공사로하수사정이 잇는것은 그공사의 정을참작하야서 기채를인정할수가잇다

三、지방채의제한에 대하야

지방채의제한은 재정의긴축만을 목적으로하는것이 아니다、현하시국에대응하기위하야 자금의조절、절제기타물자의절약을 도모하고자함에 잇스므로 되도록 적당한조치에의하야 기채액의감소를 기할것 또 사업의 종류에의하야는 연기로하야 불리익이되거나 혹은 수입에영향이잇는것이라도 가급국책에 순응하야서처할것

和信連鎖店大會

盛況裡에開幕

表彰式과見本市開催

동양유일의 연쇄식(連鎖式)경영체로 일반의주목을 끌려오는 전조선화신연쇄점 (全朝鮮和信連鎖店)제이회대회는 금십일오전열한시부터 동사자매회사인 화신배회정유흥회에서 전조선사백여연쇄점의참가과 동대회 회장박흥식(朴興植)씨의사회로 성황리에개막되엿는대 동대회에서는 업적이우수한 모범연쇄점중에서 강화(江華)연쇄점과 신고산(新高山)연쇄점의의 팔개점을 표창함과동시에 비상시사업진행에대한 구체적방침을 협의하는외에 십일일부터 십오일까지오일간은 금번서문정에 신축낙성한동사 배급과(配給課)상품견본실(見本室)에서 춘하물견본시 (春夏物見本市)를 개최한다고한다

江華和信連鎖店 宋恩庚
月井里和信連鎖店 辛錫禧
古邑和信連鎖店 嚴泰昇
龍岩浦和信連鎖店 張龍學
倭館和信連鎖店 朴東榮
統營和信連鎖店 金英鎬
新高山和信連鎖店 李鴻基
文川和信連鎖店 朴觀潤
井邑和信連鎖店 金炯日
洪城和信連鎖店 崔德吉

天氣豫報

豫報 京城地方은今夜는 개엿다잠간흐리며 明日은西風이불고 개엿다잠간흐리고 京畿全道도以上과갓다

昨日最高 零下 四度七
昨日最低 零下十七度九
今朝最低 零下 十度四
今日正午 零下 一度五

스포-츠

延專前半에不振

覇權은普專에

兩軍의妙技에滿堂은恍惚

全日本綜合籠球閉幕

43—41

全日本籠球에優勝한普專軍

【東京支局發特電】同胞兩軍의 激戰이 名實相距에 勇壯에 서 興味를 다투게 된 全日本綜合籠球選手權大會決勝戰인 普專對延專의 게임은 滿都의注目과 人氣를 이끌은 가운데 九日 午後 三時五十分부터 日本에서 내로다고 뽐내던 一橋國民體育館에서 열리엇다 諸強을 快히 征服하고 決勝戰에 對峙한 이 리 勝利는 이미 우리의것이라는듯이 泰然自若하야 勝敗를 무사히한 觀戰의 觀 技인 感을 주기게 하면서도 오히려 正正堂堂히 싸호자는 無言의約束을한 兩軍은 戰初부터 猛烈한 戰法으로 對할제 兩軍이 비저내는 入神의妙技로 滿堂觀衆을 恍惚케하드니 戰勢는 普專에有利하게 展開되여 前半戰은 二十六對十七로 리 - 드하자 이에 延專은 빼앗겻든 이 大會의 覇權을 다시하면 누리려는 野望에 燃然 새로운 戰鬪를 세우고 漸次 戰況을 逆轉시켜 普專一時危機에 빠젓다가 四十三對四十一된채 終焉의 『파스들』 소리가 올리니 敗하고도 오히려 限업는 模範的게임의 殊勳은 다치엇다 이날 午後四時十分 優勝旗와 優勝盃授與式이잇서 高松宮殿下 御下賜盃를 비롯하야 優勝記念楯 日本籠球協會長 副島伯寄贈盃 故岸博士寄贈盃 米國大使盃 優勝메달、윈닝 볼 等을 普專軍에게 授與하고 第二位의 延專에게는 準優勝메달을 授與하엿다 이리하야 全日本籠球의 榮冠은 두번째 바다를 건느게되엿다 그리고 이날 이 곳 籠球界의 指導役員에게 이 게임을 본 所感을드르면 朝鮮籠球의 技術과 『화이팅스피릿트』에 누구나 驚嘆을 앗기지안엇다

戰評

【東京電話同盟】兩軍지난해의 戰績은 延專이 六勝五敗로 겨우리 - 드하고잇는것으로 미루워보아 그 얼마나 實力이 伯仲하다는것을알 수잇다 結局 게임當日의 『컨디숀』 如何가 勝敗의 分岐點인데 아니나다를가 四十三對四十一이란 大接戰裡에 普專이 처음으로 制覇하엿다 前半은 決勝戰이란 데서 延專 지나치긴張으로 凡失을 뒤푸리하는틈을 타서 普專은 延專의反則을利하야 連續得點하야優勢를보이니 이에反하야延專은長投만濫發할뿐으로 前半은普專九點을리 - 드한채마치고 後半에드러가자 延專李容醲君의長投連다라 成功하야 得點의 差를 接近시키드니 타임어直前에 또다시 延專의反則으로 普專 自由投를 利하야 得點하니 前半의九點이 컷든만큼 勝利는 普專에게 도라갓다

(當日의審判은 大村、竹崎兩氏)

普專 43 (17 26 / 24 17) 41 延專

反	得	【普專】		【延專】	得	反
2	16	吳	F	張利鎭	8	2
3	11	李	F	李容醲	12	1
0	0	崔	F			
1	9	趙得俊	C	金	5	4
			C	李相	0	0
3	1	安	G	金	12	4
1	0	金	G	方元	2	3
1	6	吳重烈	G	李	2	1
11	43				41	15

中等驛傳競走

十四回中等學校驛傳競走의 成績은 如左
1 培材(三時間四一分二一秒 2 養正中(香川)(三時間四大分二一秒 3 丸龜中(香川) 4 天王寺 5 浪華商業(大阪)

比島遠征軍

連戰連勝

比島選拔軍을擊破

比律賓에 遠征中의 金鼎奐(레스링)、崔龍德、洪在浩、金明鎬、左龍振(拳鬪)諸選手는 『마닐라』에서의最終戰으로 全比律賓選拔軍과對戰한바 全勝의快績을남기고 地方都市『이로이로』와『세브』에이르러 二試合을 行하고 十六日『마닐라』에 도라왓다가 十八日『마닐라』出帆의郵船丸으로 歸途에오를터이라한다

【레스링·라이트級】
金鼎奐 體固 아르지빠 (二分五十七秒)

【拳鬪】
金明鎬 判定 가레로스
洪在浩 判定 파·가레스
崔龍德 判定 비란소
左龍振 判定 라미카파

遠征團의凱旋日程

新春劈頭에 大阪 東京兩地로 遠征하야 諸強豪를 물리치고 優勝한 普專籠球團과 培材陸上部를 비롯하야 最後까지 健鬪한 明女高籠球部等의 歸鄕期日은 大槪다음과갓다한다

◀淑明籠球團=今夜(十日)午後七時半京城驛到着
◀養正高普蹴球部=明十一日午後七時半(同上)
◀培材高普陸上部=十二日午後三時廿八分 到着豫定
◀普專、全延專籠球團=十二日午後七時半同上

不老長壽 強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一劑十圓 平和堂 京城堅志洞

淸血排毒強心特效藥 海草精

適應症 惡性梅毒疾患、淋毒疾患、胎毒、心臟病、急性慢性ロイマチス、關節炎、神經痛、喘息、神經衰弱、皮膚、咽喉症、連珠瘡、頭痛、腦溢血、中風、內腫、痰腫

一瓶(一個月分)三圓九十錢 京城府鍾路六丁目二八 ホルモン医化学研究所

リリヤン 文化ヤン 재봉실 끈수실 뜬수실

쌍실제조

首陽店 京城仁寺町七六 電話光化門一一六五 振替京城一七四八三

恋らが赤毛染 るり羽

곱고숫한黑髮!

生한 젊음과어여쁨 이야말로 るり羽가가진魅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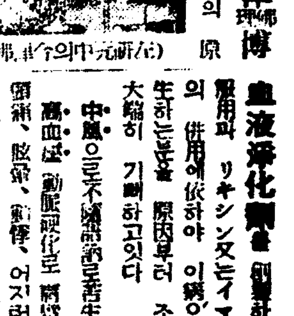
特長
一、洗髮을안해도곳드릴수잇고
一、藥은조심게湯에녹고
一、洗髮할수록色艶이더하고
一、옷깃과베개를더럽히지안코오래가
一、日本髮洋髮어데내조코
一、가장쓰기조흔染毛劑

(全國藥店에잇습)

喘息神經痛과 中風·高血壓

血의「混濁」을업새고 原因부터治療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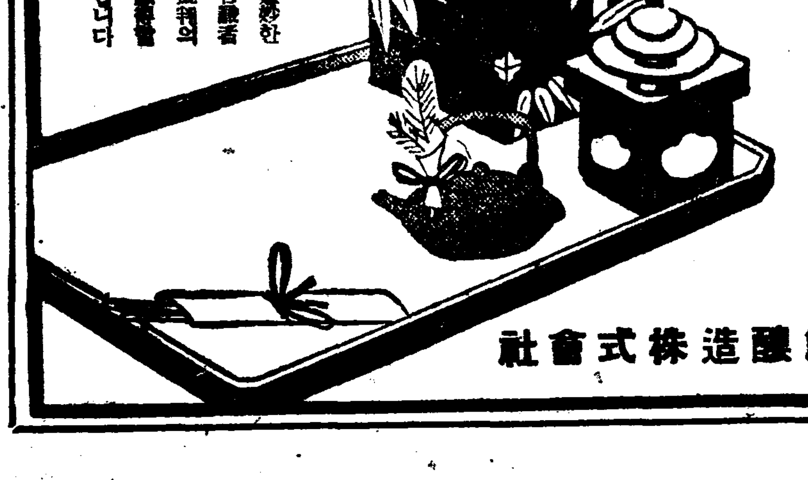
不治아니다



(右)新元中의今津博士

新世界 理研淸酒

新春에 明朗히 交盃할 慶祝의酒



大鮮醸造株式會社

樺太廳官營 海狗腎 新品到着

果然 百發百中 證明品

補精腎氣強壯에 神秘的靈効를가진 全世界에唯一한 高貴의實彈眞品이외다

求服을願하시는분은 說明書請求次第無料進呈함

釜山府草梁町四一八 發賣元 合名會社 大洋貿易社 電話一一八二番 振替釜山七九三二番

高級 織物外交販賣員募集

和信連鎖店株式會社 織物卸賣部白 代表電話光二八〇〇番

登錄商標 거북선

고무신은거북선

電光一一九

佛蘭西1937ヴェニス·コンクール賞 第一回獲得作品!!

ジャン·ルノアール監督

黃金座 十三日封切

●整髮料界의風潮를 알니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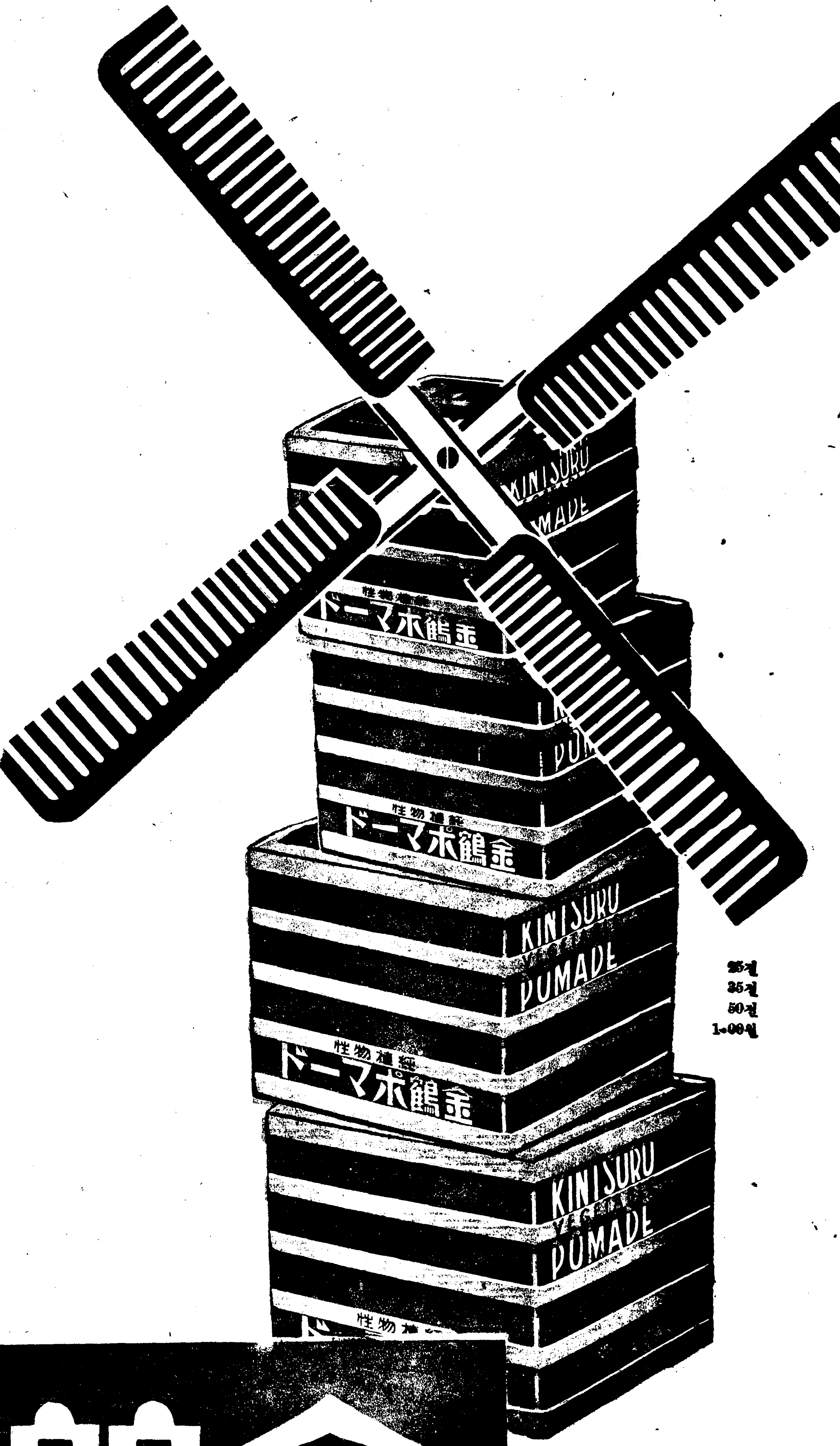
整髮本位에서 養毛本位로! 포마ㅣ드界의 風潮가 今日의『藥品配合』競爭時代를 現出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中에는 또 大端히 宣傳이 奇妙한 所謂鬼面人을 威嚇하는 術策의 의심스러운 物件도 相當히 잇는 모양입니다

藥品配合도 養毛作用이 顯著하야 잘吸收가된다는 確實한 文獻이잇는것만을 골라서 이것을優秀한 技術로서 極히合理的으로 配合해야될 것입니다

그러고 또한 그有効含有量을 普通一回의 使用量中에 保有해잇지안으면안되는것입니다

이意味로 キンツル는 効果잇는 藥品을 效果가 잇도록配合한것으로서 아마現代 養毛포마ㅣ드中의完璧品이다! 라고 自負하야 躊躇치안는바입니다



25전
35전
50전
1.00원

302426

純植物性
金鶴ポマード
긴쓰루포마ー드

毛生호로몬・코레스테링配給

低溫操作에依한
金鶴의品質

配合한코레스테링・레시틴이毛根細胞의新生作用을 도아서 折毛・裂毛・脫毛等毛髮障害를防止합니다

吸收가잘되므로 발른빗치柔和한맛이잇고번적거리지안습니다

高貴한香料를애끼지안코配合해잇스므로香氣가대단히조코훙칙한기름냄새가업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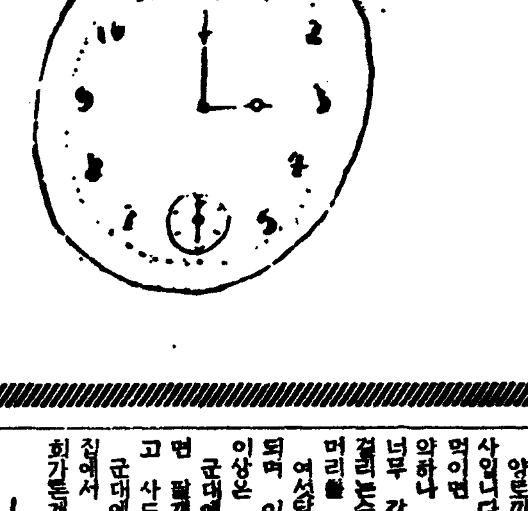
金鶴香油本舖 株式會社野村商店

우리차지

시계

빨리가도 안되고
늦게가도 안되고
더군다나 쉬어서는
더큰일이다。
초침이 한바퀴돌동안
에 장침이 겨우한금을
가고 단침이한글짜새
를 가는동안 장침은벌
서 한바퀴를 도랏다。

(공진사립 류춘우)



家庭

양의털대신에 토끼가죽이등장

농촌부업으로토끼기를만한시절 정부는국책적으로장려

양토끼를 기르는게 대단히유리한부업입니다。지금까지에는누구나 대수롭잔케 생각해왓던것이나 금번 지나사변이 일어나자 여기대한 관심이 무척늘어젓습니다。

양토끼는 기르기가 간단할뿐아니라 가죽은 전쟁에 나가는군대의 방한구로 업서서는 안될 중요한군수품입니다。

더욱 요지음은 양모의수입이 제한되여서 양모부족으로 허우덕거리는 지금이라 더욱키가 양모보다 훨신 낫다는 양토끼가죽은 천세가 나는판입니다。

양토끼는 한마리가 한해 몇번이고 새기를 칠수 잇스므로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새기를 칠수잇게됩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체계라하야 도야지와 닭치는것을 무섭게리익이 만흔것으로 알고잇던것보다 훨신더유리합니다。

더욱이 이것은 고기를먹게될뿐아니라 그고기는 담백질이만흠으로 사람의영양에 업지못할 중요성을 가지고잇습니다。

그뿐아니라 양토끼똥은 거름으로서 한목봅니다 얼마되지안흔것가래도 세마리의 양토끼똥을모아주면 한마지기 논을거름수잇습니다。

양토끼를 기르기는 정말쉬워서 어린아이나 노인으로서도 능히할수잇스며 조선가정으로 보아서는 어듸나공터가 만흠으로장소의구애를 바들우려도 업습니다。

양토끼를 기르는데는 위선양토끼종자를 사야하는데 종자는우량종을 살필요가업고 그저이웃에서 재래종의 생후삼개월가량되는 놈을사다가 기르는것이유리합니다。

그리하야 기르는법을 한번안다음에 비로소 우량종으로 개량시키도록 하십시요 종류는여러가지가 잇습니다。

보통종(普通種)단모종(短毛種)장모종(長毛種)등이잇습니다

보통종가운데의 고등생은 베르잔 골데리타등으로 군용에쓰입니다。

백색종은 메리켄 이타리안 뉴ー질랜드종이잇서서 모두외국사람들이 조화합니다。

단모종은 렉키스종 장모종은 앙고라이나 이것은 군대에는쓰이지안습니다。

토끼는 반드시 한마리식통에너허서 길러야합니다。

한곳에 여러마리를 기르는것은조치못합니다。여러마리를한데기르면 서로무러뜻고차와서 자미업습니다。

토끼집은 처마끗치나 빈터 등어듸라도 조흐데 햇비치직사하지안코 습기가업스며 바람이세게 불지안흔데를가리 여야합니다。

통은 특별히 만들지안터라도 벌궤나 삐ー루궤가튼것을 리용하야 자기손으로 만드러도됩니다。노끠는 한자두치로부터 한자다섯치 넓이는한자다섯치로부터 두자만잇스면 적당합니다。그리하야 아프로는철사그물만치면됩니다。

통속에는 짚을깔되 앙고라토끼종은 길다란털을 더럽피지안토록 통의바닥을 비스듬하게사가 지도록하고 그속에는 게릅(삽대)을 깔라서 오좀이밋트로 새여내리도록 하십시요

보통종은 짚만깔라도됩니다。

이집은 이틀만에한번식 새집풀더퍼깔고 보름만에 한번식 전체를가라내야합니다。이러케 거러낸것은 조흔거름이됩니다。

여물은 잡초와 나무입사귀며 대두마 콩나물 두부찌기 밥당겨등무어이라도 조흐나 수분이 만흔것은 금물입니다。풀가튼것도 밧긋이 말려서먹이는것이 조습니다。풀가운데도 독초는 먹이지말도록하십시요 하로에 세번식시간을엄정하게 정해노코 먼저준것을 다먹고나서 한시간쯤지게 간격을두고 정하십시요

양토끼의 생식력은 왕성하기짝업습니다 암놈 열다섯마리에 숫놈한마리비례로 기르면 암놈은 팔개월만이면 어른이됩니다 새끼를배서 한달만에 해산하는데 한번에 여섯마리식은 보통낫습니다 한해에 여섯번식치면 사십마리에 갓가운 새끼를 치고 그새끼가 각각 새끼를치니 이게모두 얼마입니까

교미는 숫놈이 한달에 열번식ー순서대로 암놈이드러잇는통에 너허두면되고 새기를 배거던 여물도만히 주도록하십시요 한로에 귀호비개로 하나씀되게 소금을 먹이는것도 조습니다。

만삭되여서 일주일쯤 되거던짚망우에 장막을 처서 밧갓자극을 피하도록하십시요 한거번에 열마리식 새기를 낫는수가 잇스니 젓이부족될것갓거던 여섯마리쯤남기고 도태시키도록하십시요 또한 적게나흔 토끼에게몰래가저다주어서 기르는수도잇는데 들키지안토록하십시요 한달이면 젓을떼는데 난지석달만에는 반드시 각각 제통에갈러너허야합니다

양토끼병으로 제일만흔것은 설사입니다。이것은 여름만주의해먹이면 별러업습니다。더운데는 약하나 추위는 잘견대납니다。너무 갑작이 치워지면 감기에걸리는수가잇스니 짚가튼것으로머리를 더퍼주도록 하십시요。

여섯달만 기르면 훌륭한 털이되며 이것을 그냥팔어도 일원이상은 밧습니다。

군대에서는 고등생의 양토끼면 팔개월된것을 검사해가지고 사드립니다。

군대에서 검사에 떠러진것은 집에서 써도 조코수출품으로 농회가튼데 의뢰해도됩니다。

야단스럽게ー꾸민것과 단순한것의대상

1938년에류행될모자

조선서는 여자들의 모자는 의례히 양장에부속한것을알고 잇스나 구라파나미국등지에서는 양장과가치아조 중요한것으로서 모자점의 수효는 양복점에지지 안습니다。그래서 그쪽 여성들이 모자에대한 관심은 여간안입니다。

제각각 자기의마음에 맛도록 그리고 양복과 조화되도록 연구들하고 잇습니다。

한가지만 두고쓰는게아니라 각각 밤과낮과 그리고 연극구경 산보용 여러개를두고 그때기분에 따라서가라씀니다。

모자의 류행도 그곳말미아마 통일된무엇이 업습니다。금년의 경향을 살펴보더라도 화려한 회합에 나갈때의 모자는 놀라울만치기발한 라인에 고기잡는그물과가치 커다란 네트를치며 공작날개가튼것을 등에 오도록처느러트리는것이 류행입니다。

이러케모자에도 개성을발휘시키는데 이것을 그냥조선녀성에게 통용시켜서는 조금어색할때가만흘것입니다。

어느때는 모자만 거리를 거러단이는것처럼 야릇하게 보이며 크리스마스의 가장행렬을 하지안나하고 의심할만큼어색할것입니다。

다음에 평상시의 모자의 류행을 보면 이것은또한단순하기짝이업습니다。

꼿도 새털도 리본도달지안코 빗갈의 벨베트와라샤로머리에 맛처서 마음대로만드러서 리본도 가튼 감으로 장식합니다

대단히 비지네스타이크로서이러한 리프트의 모자는 포켓트속에라도 들어갈수잇스니 편리합니다

라인은 크라운이 얏고 머리털이 드러나며 이마가훤하게 보이는것이만흐데 개중에는 젓이뎀히것도잇지합니다

사진은 커다란네트를 더퍼씌인 야회용모자를쓰고잇다

떡국에 동침이

떡국은 만히먹으면 체하기쉬웁니다 먹을때는 될수잇는대로 동치미와함께 먹는것이 조흡니다。그리고 다시마를 먹어도 소화가 잘되는데 위가약한사람은특히 이것을 명심하야두십시요

十日(月曜)

◇午後六時 偉人이야기『一月에난偉人명인』 金道泰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週間情報 李昌變
◇同七時四〇分 趣味講演『母系時代의女子地位』
◇同八時一〇分 西道歌謠 一、小春香歌 二、寧邊歌 三、사발歌 四、興打鈴 五、도라지打鈴 六、孔明歌 金日坤 黃順子 墨桂月
◇同八時三〇分 古談 張志浩
◇同九時(東) 피아노獨奏 一、헨델主題에據한變奏曲과遁走曲 作品二十四 브람ー스作曲 二、小品三曲 (가)롱펠로ー스트도그봄ー크作曲 (나)크라코비악크 파데레프스키作曲

第一放送

◇午前一〇時〇五分(名) 金剛琴
◇午後六時(東) 童話
◇同六時二五分(東) 支那語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同八時(城) 新日本音樂
◇同八時二〇分(大) 浪花節
◇同九時(東) 피아노

十一日(火曜)

◇午後零時五分 管絃樂(레코ー드)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託兒所란무엇인가』 韓小濟
◇同六時 獨唱 一、겨울밤 英國民謠 二、어린이꿈나라 헙버ー트曲 三、눈오는아츰 尹克榮曲 四、우는새 하이든曲 五、그리운故鄕 리ー돈스民謠 六、달마중 포ー레스트曲 七、새벽종소리 樂樂曲 八、고든봄 월손曲 九、고향생각 도ー나曲 伴奏 崔奎鎭 鄭致煥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趣味講演『梅花의傳說과詩歌』 徽高 李秉岐
◇同七時四〇分 講演『支那海關이야기』 徐椿
◇同八時五分 舞臺劇ー東洋劇場으로부터 中繼ー『香花村』ー林仙圭作 配役 金用甫ー黃澈 玉(그妻)ー池京順 香令(그딸)ー趙美齡 張元淳ー金東玉 老人ー卞基鍾 엿장사ー元圭 洞里兒孩(一)ー車敬愛 同(二)崔善喜 外여러사람
◇同八時五〇分 音律 靈山會相 中 잔靈山 가락도드리 三絃 下絃 念佛 玄琴 李彥植 洋琴 李承煥 奚琴 金德鎭 短簫 崔壽成 細笛 趙致弼 杖鼓 池龍九
◇同九時一〇分 一、새打鈴 二、六字박이 三、興打鈴 趙蘭玉 趙錦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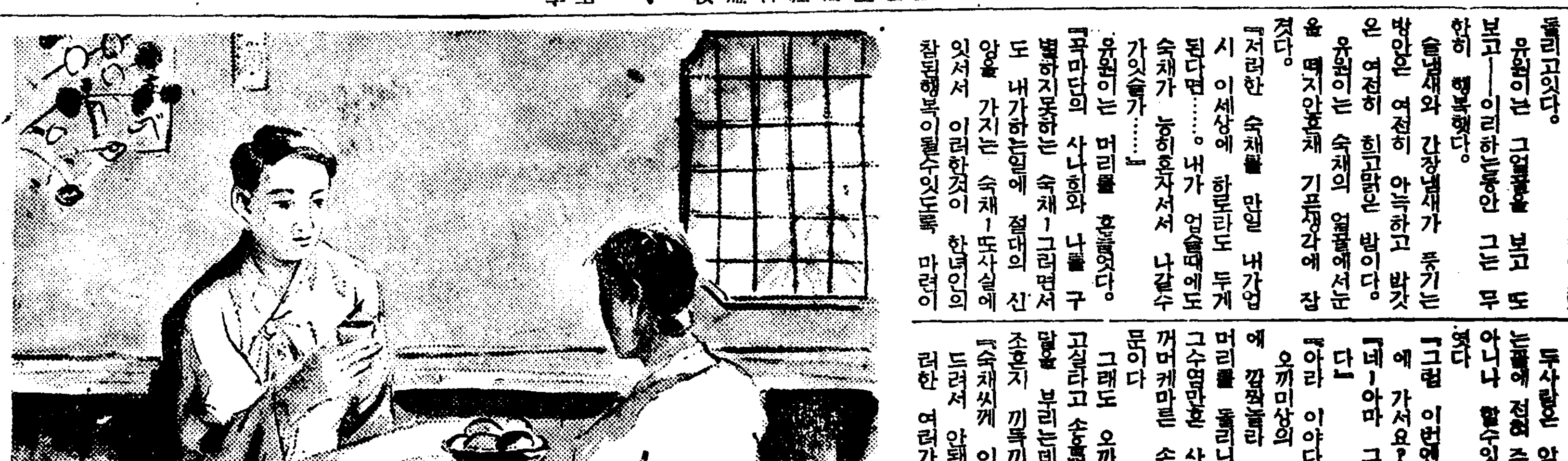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城) 管絃樂
◇同六時(城) 童曲
◇同六時二五分(東) 講演
◇同七時三〇分 講演(自大邱)
◇同八時(札) 便箋
◇同八時二〇分(東) 聯曲

中篇小說 女人命令 【16】

李善熙 作 崔根培 畫

別離(十)



어떤가 제맘대로 하기를 조와하는 숙채ー조각처럼 정돈된 회영이 지금 반춤여므로 돌려고잇다。

유원이는 그얼굴을 보고 또보고ー이러하는동안 그는 무한히 행복햇다。

술냄새와 간장냄새가 풍기는 방안은 여전히 아늑하고 밧갓은 여전히 희고만흔 밤이다。

유원이는 숙채의 얼굴에서눈을 떼지안코채 기픈생각에 잠겻다。

『저러한 숙채를 만일 내가업시 이세상에 하로라도 두게된다면……。내가 업슬때에도 숙채가 능히혼자서서 나갈수가잇슬가……』

유원이는 머리를 흔들엇다。

『꼭마담의 사나희와 나를 구별하지못하는 숙채ー그러면서도 내가하는일에 절대의 신앙을 가지는 숙채ー또사실에 잇서서 이러한것이 한녀인의 참된행복이될수잇도록 마련이된 지금의경우ー』

유원이는 생각할수록 위험햇다。

『우리 이수장(酒場)의 오늘밤은 잇지못할 기억이 파히 마음의 사치(奢侈)는 아니지요?』

『아그야 사치는 사치지요』

숙채의 여문진 말소리에 유원이는 차라리 놀라서 이러케 대답햇다。

『그런데 숙채씨ー악가꿈과생활을 구별할수업다고 하신거 말입니다。그것은 때가 이르면 숙채씨스스로 리해하실것이요 체험하실것이요 또실천하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이번에 우리내려가거든서도 말슴한바와가티 약혼을 정식으로 해야겟습니다』

방학이 인제 며칠 남엇서요?』

『한일주일밧게 안남엇슬걸요』

『그리고 이번에 다녀오시거든 그선생님소리 제발좀 그만두어주십시요。숙채씨 선생님은인제 사면합니다』

두사람은 우섯다。

그들이 자기네 이약이에 꽃을 피우고잇는동안 여기에 다른손님 하나가 들어와섯다。

그는 활고롭운한 다리에 각반을 올려치고 지까다비를 신은 수염만흔 사나이다。

악가부터 오뎅가마여페 안저 술과『곤야꾸』를 어지나 주어먹엇는지 별서머취가되여 그리도 무뚝뚝하든 오까미상을 상대로 곳잘 떠들고잇다。

두사람은 악가부터 그들에 주의를하지안흔것은 아니나 할수잇는대로 모른체하엿다。

『그럼 이번엔 저하고가티 집에 가서요?』

『네ー아마 그러케 될것갓습니다』

『아라 이야다요 오마에상ー』

오까미상의 넘다지르는 소리에 깜짝놀라 두사람이 일시에 머리를 돌리니 별일이 아니라 그수염만흔 사내가 오까미상의 꺼머케마른 손목을 잡아끄는때문이다

그래도 오까미상은 녀편네라고실타고 손목을 뿌리치며 그처럼포말을 부리는데 사내는 여전히조흐지 끼득끼득웃는것이다。

『숙채씨게 이러한 장면을보혀드려서 안됏습니다。그러나이러한 여러가지 세상을 보아두시는것도 조흐니까요』

『우리 인제는 가볼가요?』

『네 가십시다。그런데 지금면시나됏슬까요?』

유원이는 시간이야이를하매면 두또긴장해지는것이다

『열한시 십오분전이예요』

『어서가십시다。』

유원이가 오까미상의게 돈을 치러주는동안 숙채는 다시한번 이젓다운 방안을 휘둘러보고 그리고 그방안이 가지고잇는 이야기를 눈녀여보앗다。

마츰내 두사람이 이집문을나설때 그들이 마조안저 즐기든 테불 우에는 아직도 유쾌한스무개의 탕컵때기가 흐터져 잇슬뿐이다。

『오늘밤은 숙채씰 바래다드리지 못하겟는데 혼저가십시요』

『네 전관찬어요』

『저기 전차가 오는군요。바루됏습니다 저걸타서요』

『걸어갓스문 조켓는데……』

『아니 안됩니다。넘우느젓스니까요。지금은 숙채씨가 거리를 거닐시간이 아니라 즈무실 시간입니다』

숙채는 입귀가 약간 실룩해지면서 우섯다。

『그럼 선생님은 어디……』

숙채가 이러케 말을하다가줌축하고 전차를 라고간다음 유원이는 혼자서 바쁘게 전차길을 건넛다。

가정 부인의 위생

부인병에는 여러가지원인이 잇다는것을알으십니가?

차차로일기가 추워지는이때에는 남녀간에 무슨병이던지 생기기쉽지만은 그중에도특히 부인은날마다음식을 먹기는하야도 별로히 맛을몰으고 또한식욕이업서서 음식을잘먹지못하므로 몸은날로 말너서 살이빠지고 얼골에 화색이업고 두통현기가심하고 음부에서는 대하중이 흘너서기분이 조치못할때에 집작을잘못하고 치료를게을이하며 조섭할생각도업시 내버려두면 병은 점점더하야 생명까지 위험하게되는것이 즉부인병의 특증이오니 가정부인은 물론이오 처녀까지라도 꼭알어야할 부인병치료법과 애기를잘나케하는 방법을 다음에 소개하겟습니다

첫재로 대하증이 누런물이나 계란흰자가티되여서 만히흘으거나 월경전후에 괴고름갓흔대하증이흘으는때는 더욱주의하지안흐면안됩니다 다음에 대하증에서 냄새가심히나서 남의압헤갈수도업고 시부모아래에잇는 젊은부인으로서는 더욱고통이심할것입니다 이와가튼 대하증에는 동경에잇는『명지모』와『오기나구』두가지약을쓰는것이 제일조흡니다

둘재로 결혼한지三년五년이지나도록 남과가튼 아해를못낫는 경은 틀림업시 부인병이잠복되여 월경이 불순한까닭입니다 월경이 불순한것은 란소의기능부족으로 배란작용이잘못되는까닭이니 남자가 무병한때라도 애기를배지못하는것입니다 애기를못낫는까닭으로 시집사리를 재미스럽게 못하고 적적하게지내는분도 만흘것입니다 이와가티 애기를못낫는분은 병세를자세히 적어서 보내시면 적당한약을보내드립니다

셋재로 아래배가 묵시압흐고땡기고 허리가끈허지는듯이압흐고 다리가무겁고 가슴이답답한것은 부인병이 깁히잠복되여 혈기가잘통하지못하는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증세가 조곰이라도잇거든 내버려두지말고 몸조섭을잘하며 병세에맛도록가감한『명지모』를복용하는것이 제일적당한치료방법이라고밋습니다

넷재로 남편의한번실수로 발한림질은 부인에게전염되여서 자궁내막염이되고 내막염이점점심해지면 바팡염、실질염、자궁외막염이되는수도잇습니다 이가튼 자궁병에는『이호가감명지모』와『오기나구』를쓰시기바라며 병이다낫도록은 동침하지안는것이조흡니다

남편의 림질에는『快淋丸』이 제일적당할줄밋사오니 소용되시는분은 선금으로二圓을보내시면 五日동안복용할약을보내드립니다

대하증으로인하야 남편에게대할면목이업서

平壤 金○淑氏

처녀시대에는 아무것도몰으고 몸단장을잘못하고 월경시에도조섭을잘못한탓으로 결혼전부터대하증이잇섯지마는 그때에는처녀의몸으로 부모에게나 동무에게도 부끄러워서 말도못하고 혼자근심걱정을하며 지내든중에 결혼을 하고보니 대하증은 점점더하야 냄새가심히나서 숨길수업시 누구던지자궁병이 잠복된것을 알게되니 참말로시부모와 남편에게 대할면목이 업섯습니다

아!이처럼 대하증이흉오고수족이 어름가티냉하고 허리와아래배가압흐고 밤낫으로근심을하며 울음으로만지내든 내가『명지모』와『오기나구』를 한달동안 복용하고 어가치깨긋이낫지고 건강하게되여 명랑한 가정생활을 하게될줄은 꿈에도생각지못하던일입니다

나는 시골구석에서부인병으로 은근히고생을하는동무들이나농촌부인에게꼭 이치료법을 권고하고자합니다 지금도남편과 결혼당시에 대하증으로하야 혼자서 고통을하다가 꼿친말을하며 즐거워하든중에 남편이말삼하기를 그러면 감사장이라도 속히써서보내라고하기에 지금붓을들고 두어자사실대로썻습니다。참으로요새는 즐겁고재미스럽게 지내는 우리들!신가정의재미를 달큼히맛보며 감사를드리나이다

이약은 광고와조금도 틀림업시 약효가유명하고 신용이잇스니 약을 주문하야 쓰고자하는분은 병세를좀더자세히 적어서본포로보내시면 병세에꼭맛는약을 대금인환으로 보내드리오며 또한 약을선금으로 주문하시는분에게는 송료를전부본포에서부담해드리오니 여러분께서 편리한 방법으로약을 주문하야쓰시기바랍니다

婦人良藥 命之母

主効 月經不順 子宮出血 白帶下症 赤帶下症 手足冷症 下腹腰痛 頭痛眩氣 産前産後

藥價

命之母		오기나구	
六日分	一圓	八日分	一圓
十三日分	二圓	十七日分	二圓
二十日分	三圓	廿七日分	三圓
卅五日分	五圓	五十日分	五圓

本舖 東京市京橋區入舟町三 合資會社 笹岡省三藥房 振替東京五〇五〇番 電話京橋二八八七番

今日이新聞

ー부녀세히 읽어보시고 오려서 東京市京橋區入舟町三・笹岡省三藥房으로 보내시는분에게 七大醫學博士가 親切히指示하야 朝鮮말로알기쉽게 자세히 쓴婦人病自宅治療書와命之母의 說明書를누구에게던지 無代進呈하오니 하로밧비申込하시기 바랍니다 이婦人病自宅治療書는 笹岡省三藥房에서朝鮮婦人에게 衛生智識을 普及식히기爲하야 一般家庭에 한권식거저드리는것이니 藥을注文하지안는분이라도 請求하시기바랍니다

クラブ美身クリーム

眞正한榮養크림이되려면 左의條件이 꼭必要합니다

名目만의榮養크림을 아모리使用해도 第一로살결이 밧겨안습니다

살결이 鮮明하는 호르몬의效果……

榮養크림에도 여러가지잇지마는 살결의表面에밧게 作用치안는 平凡한크림으로는 첫재살결이젊고 어여뿌게되지를 안습니다。이點クラブ美身크림은 女性美의源泉인 綜合호르몬을配合한純良脂肪作의 榮養크림인故로 아모리한 주위나볏일에도 決코거칠지안는 健康肌를만듭니다。

白粉下로서도第一優秀……

그우에クラブ美身크림은 白粉下로서도 專門의 基礎크림以上입니다。特殊한 材料와操作으로 白粉이얼룩이지지안케발라지고終日버서지지안코 다른크림으로는 到底히 바랄수도업는 化粧맛을시가됩니다。

一刻도놓수업다고大評判……

인故로、朝夕의 맛사ー지에 거친살防止에 白粉下에 一刻도놓수업는 榮養크림이라고 누구나 기뻐하고잇습니다。이겨울은 クラブ美身크림으로 거친살과凍傷、잔주름과기미를 防止해서 어여뿐健康肌가 되도록해주십시요!

二五전・三五전 四五전・五五전 八五전

特히苦痛거리의 거치른살결과 中年後의잔주름도 科學的으로어여뻐진다!

거칠기쉬운살결、여드름、죽은깨、잔주름에는 化粧水クラブ乳液으로 다가내고 配合의美容クラブ美身크림으로 맛사ー지를하시요 榮養크림의最高芬華이므로 어떠한살결에라도적격됩니다

クラブ乳液
クラブ愛用 美身クリーム

化粧下に…… ホルモン含有 クラブ乳液

健康白粉…… ホルモン含有 クラブはき白粉

科學的で正しい榮養クリーム

小說庫

누구나 속기 쉬운 古書의 誤謬

裴山生

우리가 모르는 것은 그 方面의 專門的 著述을 차저 보는 수밧게 업겟지만은 그 著述가 반듯이 正確하라도 또 한번 생각하야 될 問題다。그 冊自體가 全的으로 미덥지 못할 때는 더 말할 餘地가 업거니와 아모리 미더운 冊에라도 枝葉의 誤謬조차 업다고는 保證치 못할 일이다。漢徐鍇의 說文繫傳中 [illegible]의 [illegible]字는 [illegible]이 分明히 紂紅反이라고 그 音을 말하얏스나 不拘하고 集韻과 類篇에는 全部 紂字와 同音으로 記錄하얏다。紂紅反에서 紅反의 두 글짜는 그래 보지를 못 하얏단 말인가。方言中 [illegible]의 [illegible]字는 [illegible]이 그音을 [illegible]이라고 하얏고 廣雅에도 그 音을 [illegible]이라고 하얏슴에 不拘하고 集韻에서는 [illegible]으로 字形을 고치는 同時에 [illegible]字와 同音으로 取扱하얏다。方言의 [illegible]字와는 形이며 音이며 全然 不同하지 안 한가。[illegible]中 勞心의 [illegible]字는 [illegible]字와 押韻되야 本是 근심스럽다는 [illegible]字의 [illegible]字로서 그 音은 采老切인데 [illegible]에서는 七[illegible]反으로 알고 한 거를 내키어서 念子[illegible]의 그릇되지 안 한 그 글짜까지도 역시 七[illegible]反으로 달앗스며 또 [illegible]中 歎以訊之、[illegible]의 訊字는 [illegible]等과 押韻되야 本是 告한다는 許字의 [illegible]字로서 그 音은 辞인데 [illegible]은 [illegible]에 屬하는 訊字와 [illegible]에 屬한 許字 못는다는 訊字와 告한다는 許字를 全然 同字로 알아서 訊字아래 [illegible]고 그뜻을두가지로說明하얏다。더구나 웃으운 例는 그의 [illegible]시 [illegible]으로 [illegible]字를 [illegible]에는 以水反이라고 한 것이 水字가 小字로그릇되야 以小反의音으로 알리게되얏는데 [illegible]에서는그小字를 消字로바꾸어서 드듸어 그릇된 그原因까지도 辨別키 어렵게 맨들엇다는것이다。淸末考證學者의 [illegible]를 뒤지기로한다면 이런 [illegible]의 例는 얼마든지를 列擧할수가 업지안타。그들의 [illegible]이 도리어 잘못되는 例도 업든안할것이로되 漢文古典에잇서서 그네의 功勞가 큰것과 또 그네의 힘을 빌지안코 그古典을 解釋하려함이 실로 危險함을 새삼스러이 느끼게한다。

趣味論

趣味와 秩序와 批評 (三)

崔載瑞

過去에잇서서의 習慣와經驗이 文學的趣味의基礎가되는것은 事實이지만 또한 그들要素가 아무秩序업시 머리속에드러잇다면 그것을 趣味라고 부를수는업다 우리는 單純한記憶을 趣味라고 부르지는 안는다 過去의記憶이 一定한秩序를갓추어 統一된意識을이루고잇슬때 그것은 비로소 現在의情勢에對하야 影響을줄수가이고 또 現實과의調整이라는 關係에잇서서만 우리는趣味를가질수잇다。그러면 趣味에다 秩序를 주는것은무엇이냐?

그것은 傳統이다。文學에傳統이 잇다면 우리는 그것을 古典가운데서 차자볼바께업슬것이다。同時代의文學이 서로다른 素質과傾向의 作品을 包含하고 잇슴에도不拘하고 눈이잇는批評家가본다면 그안에서 엇던支配的인 精神이나 要素를 차자낼수가잇슬것이다。한時代와 다른時代는 더욱差異가甚한 要素와精神을提示함에도 不拘하고 有能한 文學史家는 그들새에 一定한 連絡을 發見해낼수잇슬것이다 그것은 흔히 保守的인傳統主義者들이 말하듯이 單純한 模倣이나 傳承은 아닐것이다。

그러나 그들새엔 반듯이 一定한 連絡이잇다 前時代文學精神에 對한 反逆으로서 나오文學이라할지라도 秘密을아는 批評家가 본다면 그새에 有機的關係가 매저잇슴을 알수잇슬것이다。이리하야 傳統이란 古典의 模倣과 批判과 綜合의모든關係를通하야 把握할수잇는 統一的精神이다。이가티 한文學을支配하고잇는 統一的精神을 漸次로 體得하야가는過程이 即敎養이고 또 趣味의養成이다。그러키때문에 敎養에 一定한限界가 업는거와마찬가지로 趣味의進化에도 終末은업다。그의習慣가깁허가면 갈사록 그의體驗이넓어가면 갈사록 그의 傳統攝取는 豐富하야질것이고 또 秩序는緊密하야질것이다。하물며 一地域 一社會의傳統만을 생각치안코 다른地域과 다른社會의傳統이라는것을생각할때 實로 敎養과趣味의경은 無窮하다할것이다。

英國의批評家 세인즈베리敎授는 저浩瀚한『歐羅巴批評史』三卷을 『歐羅巴에잇서서의 趣味의變遷』이라는 謙遜한副題下에 世上에내노앗다。그러나 謙遜하다는것은 엉뚱한 우리들의생각이고 事實인즉 批評史가 趣味의變遷임에 틀림이업다。敎授는 이力作에서 希臘羅馬로부터 흘러나려오는 歐羅巴文學의 傳統을 捕捉하기위하야 古代로부터 現代에이르기까지의歐羅巴各國의 批評文獻이라는文獻을 죄다 (誇張이아니다)探査하야 文學的趣味의 變遷을 實證的으로吟味하얏고또 同時에 그들모든個人的偏差를通하야 主流를定向하기에 努力하얏다。그主流는 時代를따라 흘러갓고 또無數한支流를 合치으로할미아마 川幅과水深은 漸漸커갓다 이모든經路를 三卷의著書안에 記述하야노은 『歐羅巴批評史』는 一步一步 眼界가넓어지는同時에 一步一步秩序가緊密하야지는 實로敎養이라는이름에 適當한勞作이엿다。

말이난김에 또하나紹介한다면 最近에 케렌드氏는『趣味의轉不馬』라는 스마-트한冊을 내엿다 그것도亦是 趣味의變遷을通하야 英國批評의歷史를 槪觀하라는企圖엿다。나는 이著書의 學術的價値보다도 그敎養的價値를 더 노피評價하엿다。

×

趣味가 比較와辨別에依하야事物을判斷하는 鑑識力이라면 그것이 批評과密接한關係를 가질것은 明白한일이다。批評도 結局 比較와辨別을通하야되는 一種의鑑識이냐가。그러나 兩者는 決코同一한것은아니다。

사람은 批評을가지기前에 趣味를가진다。精神發達上으로보드래도 사람은 위선趣味를가지고 그다음에批評精神이 생겨난다。또한 作品을읽을때에도 위선趣味가 發動되고 그다음에 批評이 뒤따라온다。이것은 批評이 趣味의合理化이기때문이다。사람은 作品을接할때에 趣味에依하야 그好不好를 直覺的으로 判斷한다。그러치만 假令 이直覺的判斷이 正確하다 할지라도그것만으론 批評은 될수가업다。

新刊紹介

▲게자씨 新年號 發行所 平壤府新陽里一八三의二 게자씨社 振替京城五三三一番 定價十錢

▲朝鮮織物日報 一月號 發行所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一二三 朝鮮織物日報社 定價三十錢

▲朝鮮商工彙報 十二月號 發行所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三五 朝鮮總督府商工獎勵館內 朝鮮商品調査研究會 定價十錢

▲朝鮮銀行統計月報 十二年九月分 發行所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一一〇 朝鮮銀行 定價五十錢

▲十字架 新年號 發行所 京城府昌信町二三五의二 十字架社 振替京城一七五〇九番 定價一部六錢

▲酒 新年號 發行所 京城府阿峴町 朝鮮總督府財務局稅務課分室內 朝鮮酒造協會 振替京城一八二九〇番 定價五十錢

▲ローマ字 一月號 發行所 東京市麴町區丸ノ內三丁目一二 ローマ字ひろめ會 振替東京九一一番 定價二十錢

新春懸賞時調 (選外佳作)

觀瀾

張應斗

시퍼런 碧波러니 깨어저 白波로다
白波 이는곳에 옥을부려 던짐인가
구슬을 뿌리는양하여 소리더욱 맑아라。

×

치고는 물러가고 물러갓다 다시치고
되감어 밀고들어 꼬리를 물고맛고
쇠쇠쇠 뛰노는양이 귀노코도한 장해라。

×

부드처 깨어질제 깨지는양 아깝더니
깨어저 괴어날제 꼬치치리 귀여우리
물방울 되나려안즈니 그것다시 아까워라。

律管의 解說 (一)

李王職雅樂部長 咸和鎭

太古時代로부터 人間이잇는곳에는 반다시音樂이잇고 舞蹈가잇나니 人間에게言語가생기기前부터도 人間의本能的인感情의發作으로 喜怒哀樂을表現하게되야 咏歎之聲이發作되는同時에 音樂的發音을 作하며 不知不識間에손이춤을기고발이뛰여 手舞足蹈하게되는것이다。

이와가치 各種의構成된音이 人間의 感情을 表現하는것이니 다시말하면 人間의 本能的인感情을 이音樂으로써 더適當하게 表出할수잇고 身體의規則的 運動을 助長하는것이 即音樂의起源이되는것임으로 人間이잇는곳에는 반다시 音樂이잇고 舞蹈가잇는것이다 故로 本能的感情이 心中의情的運動으로부터 生하는音樂에는 內部的 喜怒哀樂等의 情을 唱出하는叙情曲이나 各種의 事物을音樂으로써 表現하는 叙事曲等이니 이音樂은 우리心中에서 일어나는 各種의感情을 音의組合에依하야 表現할수잇는것이다。

感情的運動은 音樂이 우리感情의變化와 密接한關係가잇지리 外部的運動의 表出과 密接한連絡을 取하고잇슴으로 外部的運動은 即 身體에表現되는運動이니 即 步行 進退 舞蹈等의運動을 表現하는行進曲 舞蹈曲等으로부터 遊戯또는筋肉勞働의 動作을助長하야 內外的으로 表現할수잇는것이다。

이러므로 音樂은 우리의 內部的이나 外部的으로부터 이러나는運動과 密接한關係를가지고잇서서 時間的變化가必要함으로 音樂에는旋律과拍子等이 最大要素가된다

音樂은 가튼藝術中에 繪畫나彫刻과가튼 美術보다도 音樂은人心을支配하고 世上風潮를左右하는 힘이 偉大한故로 實際古來의 音樂이 世上의風潮를 左右하는例가 不少하다。

그러므로 東洋에서는 禮代韓國初에 반다시 禮와樂으로써 國政을삼어엿스니 例컨대 『聞其樂而知其政』이라하야 그나라의 音樂을드르면 그나라의 政治를 알수잇다하엿고 『以禮樂으로治天下』라하야 禮와樂으로써天下를 다스리다하엿스니 音樂은 偉大한힘을 政治敎育上에利用한것은 歷代文獻으로보와 昭然한 事實이다。

元來 藝術은 國境이업서서 그藝術의方法과要素의思想을따라 그音樂의 由來와變遷이 各各달음으로 그內容原理에잇서서는 特別한 差異가업스나 其解釋方法과形式에잇서서는 多少相違되는點이잇스니 哲學上으로 分解하야 高級正當함을 主張하기도하고 通俗的으로도 分解하야 通俗的樂曲을 主張하기도하고 野俗卑近하게 分解하야 淫蕩浮薄을 主張하기도하엿스니 이것이 時代의風潮를따라 變遷하는것이 그時代의한 風潮라고할것이요 人間의힘으로 抑止식히기는 到底不可能한일이다。

이와가티音樂의힘이 엄마나偉大한것을 알수잇는同時에 우리人間과音樂은 暫時라도 分離할수업다는것이다 그러면 太古時代로부터 發生된音樂 엇더한 樣式으로 標準音을定하엿스며 또엇더한方法으로 發表되엿든나하는問題에 對하여는 무엇보다도 樂器가第一必要하다고할것이다。

그러면 最初樂器를 創造함에 무엇을標準하엿스며 엇더한方法으로 創造하엿는지 이것을 說明할 必要가잇다

新春一等當選小說

남생이 (三)

玄德 作 洪祐伯 畫

주셔 가까운 날밤은 어느날이린노마가 양지쪽에 헐벗거리고 안저 흙장난을하는 그런 장면 인상시픈 구수한 땅내까지 끼친다。지금 안해는 종래기에접시음담어뒤로 몰려차고 퉤산으로 소녀를 거드리갓 거니。

『노마 너 절볼집 생각나니』

『응』

『너무 가보구 시픔매 잇니』

『응』

박가슴에 주주룸한 날은 절터가 잇는 적은 마을이다。되갓에는 남부가 흔하고 산담이나마 땅이 기름지고 살림이가난하다 하여도 생이 욕되지는 안헛고 대추나무가 만허 가을이면 밤참으로 배불리엿다。다고만두고라도 거기는 너 나사점이 통하고 나치 익은 이웃이 잇고 길가의 돌 한아 밧두덕길 실개천 하아에도 어린때발자욱을 볼수잇는 땅이다。

그러나 몃해전은 지금 여기서처럼 진절머리를 내든 그땅이엿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랄란곳을 못이저하지 안헛든가。사실은 그때 영이할머니의 편지를 밋는두섯이 업섯드면 그처럼 단판 쏘흠으로 지주가보는아페서 마름 김오장의 면살을 잡지는 못하엿슬것이다。

그더에 나머지사람들은 지주에게서 나오는 비료대도 제대로 차저먹을수 잇섯고 예에업시 마름집 농사에 품을 바치는 페단도 면하엿지만 자기는 그통외로 이내 땅을 떼키고마럿다。지금 생각하면 모두 편지대로 쉬웁게 쪼기위하야 일부러 자기를 막다른곳로 모라너흐려고 한짓 갓다『一선창 버리가 조하 하루 이삼원 버리는 예사고 저만 부즈런하면아이를 학교공부 시키고 땅섬지기 작만한 사람도 적지안란 이말을 다 고지믿든것은 아니지만 땅업시는 살수업는 살림이요 그물을 김오장에게 보이기가 무엇보다 싫혓다 하기는 처음 떠나온 얼마동안은 그땅이 사실이상시픈 생각도 업지안헛다。

섣청에 나가 소금을 저날을때도 그러타。이빼근도리 바수거리를 질머지고 도합으로 마른제시간안에 대는라고 숨다란 발판위를 흠짓처럼 다름질치는일을 닷세 이상을 못해이로 게속하면 장사 소리를 듯는다는 고령을 노마아버지는 남위에 업시 꿋꿋이 백여냇다。보지 부지런한것이 한가지 농으로 감혹의 눈에든바되여 매일 일흠어를수잇든 노마아버지라 자기말고도 얼마든지 좋지 나기를 노리고잇는 배고픈 얼굴들에 위협이 되여서뿐만이 아니다。영이할머니 편지에 말한바 아들자식 학교공부 시키고 땅섬지기 작만하려는 애초에 고향을떠날때 먹은결심이 망고판처럼 눈아페 가르켜 악지를 썻다。그러나 노마에게 학생모자 한아를 사주것다고 벼르기만하면서 노마아버지는 먼저 몸이쿨햇다。

점점 배에서 못으로 건너가는 발판이 제게 한해서만 흔들리는것 갓고 그아래 시퍼런 물이 무서워젓다。아래서 처다보는 허연산 소금덤이가 올라가기전에 먼저 어마어마해 기가 지슬렷다。무르페 손을 지펴야 하게쯤 허리는 오그러들고 거름은 뒷사람의 길을 막고 핀잔을 맛는다。밤에는 식은땀에 이불이 젓고 바른기침이 낫다。

마지막되는날 그는 전한든대로 소금덤이로 올라서서 부삽으로 가르키는 장소에 기웃뚱하고 한편으로 몸을 꺽거소금을 뒤채지못하고 그냥 어프러저 두어갈통 씨르르 미끄러저 나렷다。목에 조고만 상처도업스면서 그는 전신의 맥시 탁 풀려 사지를 가등기지못햇다。한자나 작년처럼 팔을 잡어채는대로 헛청으로 몸을 실리엿다。그리고 노마아버지는 이내 선창과 연을 끈헛다。몸살이거니하고 며칠만 쉬면하는 병은 점점 꼴수로 기펴갓다。

『노마 너 소금 선창에 가밧니』

『응』

『죽옥소금배 드러찻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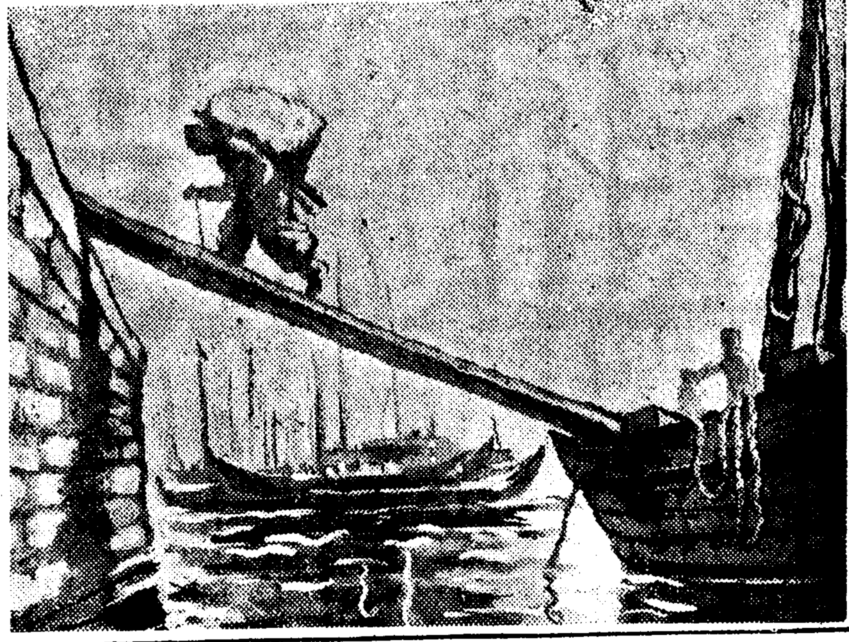
『응』

『소금 저나르는사람 만치』

『응』

자서 노마를 나려다보는 주연한 얼굴이 흐려지드니

『보기실라 보기싫여 저리가』



謹賀新年 戊寅元旦

安東縣

永昌膠皮工廠 安東市北一條通九丁目 電話長一〇〇一番

穀物委託賣買 運送通關 安東縣一番通五丁目四番地 西昌號 西昌運送部 西昌通關部 長電話本局三九五八番 分局六二番

滿蒙特産 各國名藥 滿蒙特産物商會 安東縣四番通八丁目四

株式會社 安東取引所 取引人組合

安東縣下川端町 各種高級皮鞋 學生服 帽子 化粧品 大同公司 主 康丙坤 長電話一一六八番 取引銀行中央銀行

安東市官電街九六 內科 花柳科 小兒科 肛門科 大同醫院 院長 金命燁 電話分局一九九番

大東產業株式會社 安東市市場通九丁目四 社長 金基鴻

新滿洋靴店 安東市四番通九丁目四 主 廉致守 電話分局五五四番

性器強大藥 男子性器短小와 早漏에百發百中!

丸腎補導淸 早漏防止 國境大藥房 安東縣一番通五ノ一 總代理店

安東牧場 安東市場通り 電話一一七四

高信精米所 安東市二番通四丁目三 電話三八五番

義成商會 義昌運送部 安東縣三番通七丁目三 主 金炳浩 日長電話一一三番

安東縣公署 縣長 宮文超 參事官 田中有年

日聖公司 安東市三番通七丁目 貿易委託 運送通關 日聖運送部 日聖通關部 電話長一〇四九番 私書函一一番

義成號 安東市六番通八丁目一 穀物貿易 委託賣買 電話長一一二七番

安東縣公署 沈宜均 洪致俊 明東漢 李文永 金克鏞

日增洋行 安東市場通九丁目 綢緞洋雜貨 安定仁 電話分局四六一

培英公司 安東市一番通五丁目 穀物貿易 委託販賣 運送取扱 通關代辦 支店 培英精米所 電話二九番

株式會社 安東取引所 安東市大和橋通

東興商會 滿洲國安東市南三條通二ノ八 海陸物産 委託貿易 運送部 私書函旭局七號 主 申麟官 電話本局長一四八番

韓興精米所 安東市場南通八丁目 穀物委託 金鳳周

順天堂醫院 安東縣六番通九丁目三 醫師 金昌一

韓命稷 鄭來溶 安東市興業銀行支店

中央寫眞舘 安東市四番通九丁目 寫眞撮影 電話一三六四番

朝日旅館 滿洲國安東市三番通六ノ四 電話一二九八番

中央キネマ 安東市大和橋通九丁目 電話七九二番

高輪商會 自轉車及附屬品直輸入 卸商 高有權 安東市四番通八丁目 電話本局一九七一番 振替奉天一二一一番

豊潤商會 安東市場南通四丁目四 穀物委託 精米業 主 金基永 日電一二六二番

兄弟商店 安東市四番通八丁目 洋品雜貨 主 白溶龜

金安公司 安東市大和橋通八丁目 貿易委託 運送通關 金安運送部 金安通關部 電話長七八六番 私書函旭橋六號

利和時計店 安東縣市場通 電話七三番

海東公司 安東市大和橋通六丁目二 貿易委託 精米業 主 張景淳 電話長四八五番

安東市大正普通學校 職員一同

李泰永 安東市九番通二丁目

金泰榮 安東市六番通七丁目

合資會社 共和精米所 安東市二番通二丁目二 電話一三〇四番

金東昊 安東市二番通二丁目

金虎贊 安東市三番通五丁目

百田自轉車店 安東市四番通八丁目 電話二二五番

第一洋服店 安東市四番通七丁目 主 金光勝 電話一三五九番

安東金融會 安東市二番通二丁目

大松蓄音器店 安東市四番通八丁目 李東燦 電本一一五〇番

金大成號 安東縣六番通八丁目 穀物貿易 委託賣買 運送通關 日長電六八二番

江界旅館 安東市四番通七丁目

共昌精米所 安東市一番通三丁目 電話八五三番

東昌祥 安東市一番通五丁目 穀物委託販賣 電話三九二番

金昌號 安東市四番通八丁目 土地家屋 一般仲介 信託金融 官廳投資 主 金尙玉 分局電話八六八番

三和精米所 安東市場南通八丁目二 金志寶 電話四八九番

丸鴨精米所 安東市六番通 金志善 電話二九二番

東亞興產會社 安東市大和橋通 洪鍾璿 電話五〇六番

壽惠醫院 安東縣金湯街三三號 院長 白根洞

共信商店 安東市三番通七丁目 穀物委託 精米業 主 金國成 電話四〇二番

大東號 安東縣一番通五丁目 米穀商 電話七二五番

太星莊藥品部 安東市新市街 李林贊

華豊泰 安東市興隆街頭道橋子 專門婦人科及內科 張雲鵬

日星館 安東市二番通六丁目 朝鮮料理 主 韓□植

滿洲電業會社 安東支店 安東市市場通八丁目

安東市立授産場 安東市南一條通三丁目 電話一三三三番

安東稅關 尹□□

趙尙駿 安東市六番通九丁目 精米所

三酩商會 安東市南三條通一丁目 主 羅榮七

嶺南旅館 安東市四番通七丁目

趙敏述 安東市場南通九丁目一

崔忠元 安東市協成銀行

龍滿商店 安東市六番通九丁目

春滿精米所 安東市南二條通三丁目

朴根培 安東市場通七丁目

安東市四番通八丁目 □一商店

健康社 安東市四番通九丁目四 專務 文再基

昌興釀造場 楊州郡眞乾面思陵里 李載瑛

楊州酒造組合

楊州稅務署

佳陵農園 議政府

楊州郡楊州面 職員一同

淸和產業組合 楊州郡和道面磨石隅里

京城地方法院議政府出張所 職員一同 管內司法書士一同

議政府酒造合名會社

柳醫院 議政府

議政府 司法書士 李箕錫

楊州郡廣積面 職員一同

楊州郡長興面長 崔基俊

楊州郡檜泉面長 申瑩秀

京元線議政府驛構內 朝鮮運送株式會社 議政府代行營業所 代表者 金溶榮

議政府 李鳳五

楊州郡和道面磨石隅里 申聖熙

楊州郡廣積面佳納市 崔永煥

議政府 長春旅館

議政府 昌濟醫院

楊州郡別內面 職員一同

楊州郡九里面 職員一同

榛接面 職員一同

楊州眞乾面長 金顯敬

楊州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參事 柳基馹

塔洞

平北龜城郡沙峴面 東邦鑛業株式會社

三元鑛山職員一同

平安北道龜城郡天摩面 平安鑛業所 職員一同

龜城酒造合名會社

天摩面協議會員 河津與三郞

龜城郡沙器面九岩洞 九岩學院

新市金融組合 理事 李約翰

龜城郡 天摩面事務所 職員一同

日成商會

新市精米所

龜城郡 沙器面事務所 職員一同

龜城郡新市 天保堂醫院 獨松洞出張所 金應奎

古河平安鑛業所 崔信燮 姜淳一 朴桂焜 金海潤

平北新市郵便所

木炭貿易 金應權

沙器面九岩洞 宮川邑中央通 最新流行 洋服調製 信美洋服店

沙器面九岩洞 裵應洙

平北新市 三廣精米所 白承福

沙器公立普通學校

茂朱

茂朱金曜會

茂朱郡廳 職員一同

茂朱警察署 警友會

全北茂朱邑 各種印刷 洋紙和紙 一般 金城印刷所 振替京城三五一〇一

茂朱金融組合

同信商會

茂朱面職員一同

茂朱郡內各學校 職員一同

茂朱釀造組合 代表者 陳福基

全羅北道評議員 柳鎭爀

中央藥房 金中植

全北茂朱邑 南昌百貨店 李基南

茂朱邑內 趙漢喆

茂朱館 山中又治郞

茂朱安城釀造場 代表者 陳福基

全山茂朱郡安城郵便所 所長 金琫洙

茂朱煙草耕作組合 職員一同

芝南醫院長 申鉉燉

娯樂

唱劇調의革新위해 奮然挺身한新進名唱
唱劇界의彗星 金錫九氏 本社後援으로데뷰ー

무거운傳統에 눌린채 沈滯의 一路를 것는 우리舊樂界에 一大驚異과가티 나타난 存在가잇다。 본적을충북보은군보은면누저리(報恩郡報恩面樓底里)에 둔김석구(金錫九)(三〇)군이 바로그사람이다 본래 가명도 상당해서 추암(秋菴)소봉으로 한문공부를 하든중 점차 성악에 취미를두엇스나 우리구악이 대개는 娛樂의對像밧게되지안는것을 섭섭이 녁여 엇더케하든지 自進해 改革을해보려고 노력하든바 三年前부터는 奮然히 決心하고 斯界에 投身하여 李東白 丁貞烈 等 大家들에게 私淑도하고 名山深谷으로도라다니면서 自習도 한結果 唱法에對한 自信을어더 오는 十日ㅣ十一日 兩日間을本社學藝部後援으로 府民館大講堂에서 데뷰ㅣ하기로되엿는데 이분의 포부를 듯건데 이때까지의 唱劇調가 歌詞와 唱法에對해서 아모런 調和가업슬뿐아니라 甚한例로는 歌詞를 하나도 正確하게아는사람이업슴으로 우선이것부터 是正해야하겟다고서 在來의 唱劇調에서 歌詞의 誤謬를 全部 곳치고 그外에도自作으로 湖南歌、京畿歌를創作하여 短歌도부르는데 그唱法은宋萬甲流의 正統派에 屬함으로이

金錫九君의 出現이야말로 일직이 우리 唱劇史上에 [illegible] 有名하든 [illegible] 氏에 匹敵하다고하며 獨唱會에는 特히 宋萬甲 李東白 丁貞烈 金昌龍 韓成俊 吳太石 丁南希 朴綠珠 金鍊守等 斯界의 大家들이 賛助出演으로 [illegible]을해서 一大豪華陣을 形成하리라고하는데 이獨唱會는 新春劈頭에잇서서 舊樂復興의 첫烽火일뿐만아니라 因襲과 傳統에만 [illegible] 항상 萎靡不振하든우리舊樂界에 一大 啓蒙의 炬火가되는만큼이번 데뷰ㅡ야말로一般의 興味를 끄을어 마지안흐리라고한다。 그리고 入場料는五十錢均一인데本報讀者에 限해서 三十錢으로割引하는 同時에 團體券은 別項揭載이다。

(寫眞은 金錫九氏)

⊛ 朝鮮日報讀者優待券
金錫九獨唱會
入場料 五十錢을三十錢으로
場所 府民館大講堂
時日 一月十日ㅡ十一日
一人一枚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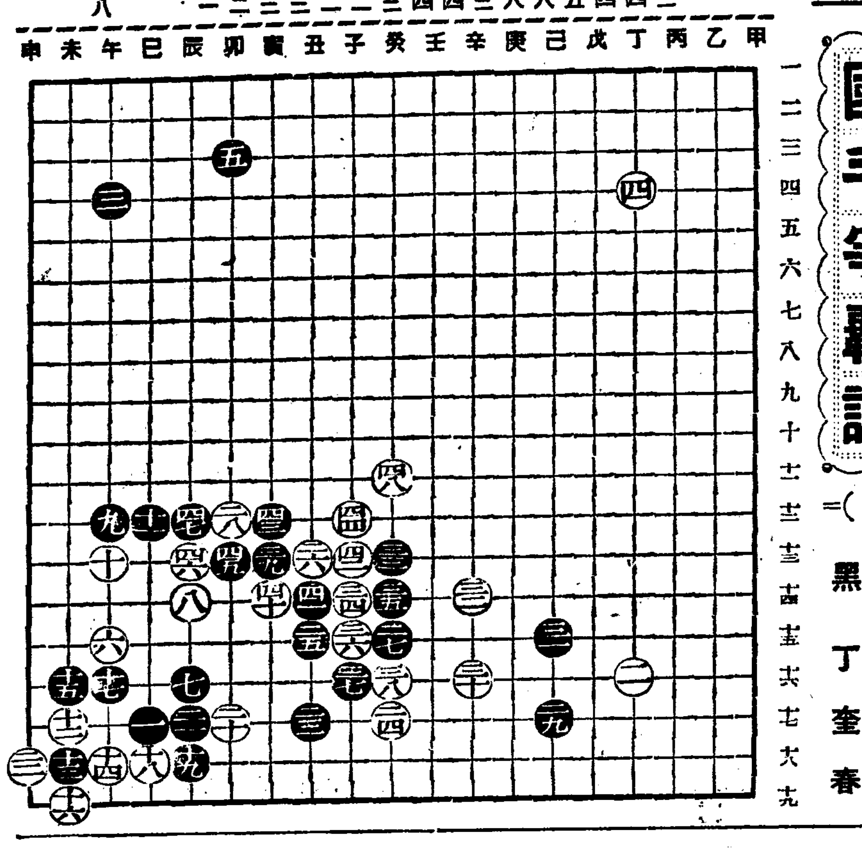
本社獨占

國手爭覇譜 =(3)=

白 盧史楚
黑 丁奎春

展也大成할白이 短兵戰으로失敗
君子는辭不迫切이라거니 白子의十四는넘우早計

●三十三 癸의十三
○三十四 子의十四
●三十五 癸의十四
○三十六 子의十五
●三十七 子의十六
○三十八 癸의十六
●三十九 寅의十三
○四十 寅의十四
●四十一 丑의十四
○四十二 子의十三
●四十三 寅의十二
○四十四 子의十二
●四十五 卯의十三
○四十六 辰의十三
●四十七 辰의十二
○四十八 癸의十一
…死點…
●四十九 未의十八



前回에잇서서 白의 善戰이ㅡ奏効해서 第一回의 頹勢를挽回할뿐아니라 西邊과 北邊의 中央으로 나온 兩軍이 도리혀西角의 黑軍을 包圍하는듯한 形勢로보히더니 黑三十三이 癸의十二로 머리를 들고보니 비록 그것을 包圍하려는것은夢想에 각갑다고하드래도 白 西邊과 北邊에 根據를 둔兩馬가 狹弘한 前進의地盤을 向해서 辰의十으로나 己의十三近處로 벌렷드면 展也大成할希望이 업지안헛슬것인데 黑의虛隙이 보힌다고해서 단판싸홈으로 三十四를 子의十四로 간것은 좀迫切한感이 업지안타。君子는 辭不迫切이란말도잇거니 하물며 勝負의大決戰에서 이러케 迫切한 侵略은 果然어떠한 結果를 나타내일는지 자못의심스럽든바 마침내 手順에따라 黑은 三十五를 癸의十四로 이으니 白은 다시 三十六을 子의 十五로 네려가나 黑三十七이 子의十六으로 막는지라 白三十八은 癸의十六으로 떼기는하엿스나 별로 神通할것이업는데 더구나 黑이 三十九를 寅의十三으로 가고보니 白勢는 漸次로 不利해지는데 이때에 白이四十을 寅의十四로 바든것은 子의十四、十五 二目을 犧牲시키지아니하는同時에 黑癸의十三 十四 十五 三目을 包圍하려는 心算이나 그것은 아직도 完獲之物이되지못하는 同時에 西邊의白陣만 確實이 陷落이되고보니 白으로서는여간損失이아니다。

(赤松子觀戰記)

舊樂界의彗星

新進名唱 金錫九獨唱會

賛助出演
宋萬甲・李東白・丁貞烈
金昌龍・吳太石・丁南希
韓成俊・朴綠珠・金鍊守

時日 一月十日、十一日午後六時半
場所 府民館大講堂
入場料 五十錢均一(本報讀者三十錢)
主催 朝鮮音樂舞踊同好會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馬山 馬山金曜會

馬山酒造組合
朝の灘醸造元 大典正宗醸造元 寒牡丹醸造元 濵鶴醸造元 鷄林醸造元 イツツ平正宗醸造元 彌生醸造元 艶綠醸造元 櫻正吉醸造元 月の浦醸造元 松の色醸造元 大正櫻醸造元
井手酒造場 石橋酒造場 原田酒造場 濵田酒造場 西由酒造場 平井酒造場 千鳥園酒造場 村崎酒造場 山邑馬山工場 松本酒造場 三好酒造場 清水酒造場

朝鮮燒酎 長春 舞鶴 醸造元 合名會社 馬山中央朝鮮燒酎工場

株式會社 馬山繰棉工場

馬山農工金融株式會社 振替口座釜山六六一四番

馬山朝鮮酒製造業者親睦會 電話三二〇番

馬山府石町一二七 內外藥種貿易商 金相權 電話六五九番

馬山公立學校教員會

朝鮮料理 天海館 天海堂藥店 電三一五 六六三番

馬山穀物商組合 組合長 淸水儀一 副組合長 孫亨業 書記 朴建壽

馬山新町學校前 中央寫眞館 閔長植

昌原郡廳

馬山朝鮮酒造組合

馬山府壽町六 馬山齒科醫院 高相穆

乾鳳寺布敎所 李道源

銀河會館 職員一同

馬山府萬町一四一 水山醫院 醫師 崔根金 電話七〇四

馬山府石町二一七番地 合資會社 崔景軾商店 代表社員 權泰成 電話七三三番

馬山府萬町三〇二番地 專門疾病相談所 鶴山醫院 醫師 李順炳 電話三五二番

馬山府上南洞 昌信學校 孟皓恩

朝鮮馬山府萬町二五三番地 美術的金銀細工製造 都散賣金銀高價買入 永光堂金銀房 主 姜道祐

馬山府萬町一七三의一 產業金融株式會社 電話四〇九番 振替釜山七四六九番

馬山府俵町三一番地 馬山藥酒株式會社 電話五四八番 振替釜山九一二四番

醫學士 徐基弘 電六二〇番

馬山府元町 李根斗

馬山府石町 光文印刷所 電七一四番

馬山府石町 仁華商店 電五一一番

馬山府石町 朴聖則

馬山府元町 絹布綿布雜貨 金命福商店 電話三三六番

馬山石町 李光雨

馬山府會議員 常松泰

馬山府富町五六ノ二 綢緞布木 白羊商會 金炳璐

馬山府俵町二一 安炅日

朝鮮石油會社特約販賣店 肥料綿緞 石油漁業 南洋商事 電話二〇六番

昌原郡熊南面 黃華守

昌原郡內西面中里 朝鮮酒醸造業 李鉉庠

咸安郡漆原面 朝鮮酒醸造業 鄭甲永

馬山府上南洞八七의二 安永濩

白馬印各種帽子製造元 帽子卸商 三德製帽所

蔘茸堂乾材藥房 朴相采 電話三三二番

馬山府石町 金榮植 電話三二番

馬山府石町三二五番地 三和護謨馬山出張所

馬山府石町一二三의一 韓圭相

馬山府外檜原洞 協同精米所

馬山府元町電話五二七番 鎭海分店 朴舜景

馬山府俵町七五 金鍾順

馬山府石町 五行堂藥店

馬山府午東洞一三五 金水蓮

馬山府上南洞 南璣祐

朝鮮馬山府元町 元東貿易株式會社

馬山府上南洞 金尙玉

馬山府上南洞一四九ノ二 尹慶學

馬山府俵町 鄭鉉庸

馬山府午東町 南昌醫院

馬山府上南洞 南鮮精米所

馬山府俵町 大同醫院

馬山府新町十二番地 日出寫眞館 主 廉一心

俵町一二 姜復淳

馬山府石町一三五 金銀商 開元店 主 金相啓

醸谷酒醸造場 姜悧祐

馬山府元町一九五 金洪洙

米穀委託 金斗彥 馬山府元町 電話六六六

馬山府元町魚市場 明道烘

馬山府元町海岸 海陸物產問屋 金漢榮商店 電話七番

馬山石町 文具商 江南文具店 電三三二番

馬山府壽町 中華高等會席料理 金谷園 電三三四番

朝鮮料理 長春館 電一二一番

內西面山湖里 金喆祚

馬山府午東洞 午東券番 權炳淳

梁山通度寺布敎所 朴大冶

馬山府新町六四 金炯珍

馬山府午東洞一二五 金菊姬

馬山府俵町一一〇 申永守

馬山府壽町二九七 金炯轍

馬山府元町 金物陶器商 玉致淵

南鮮日報社 中央產業社 安承圭

馬山府元町一三七番地ノ一 馬山協同合資會社

馬山府俵町 玉麒煥

馬山府俵町 漢陽館

具麟旭

馬山府萬町二二四 鄭性鎬

馬山府俵町 金炯壽

馬山府元町 振興商會 電話三三五番

丸武精米所 馬山府外檜城里

馬山府萬町 合名會社 浪花洋品店

昌原郡 鎭田面長

善山

會席完備 高等料理 平和食堂 主 金基鎭

善山十五日會

善山 道議員 朴基元

善山邑 愼重基 電話一九番

龜尾酒造場 電話一〇番

高牙酒造場 愼重

高牙面新村 玉泉酒造場 冠源酒造場 金柏

善山郡舞乙面安谷洞 安谷酒造場 主 呂東 書記 金舜在

龜尾面職員一同
高牙面職員一同
桃開面職員一同
山東面職員一同
舞乙面長 池世春
長川面官公所

龜尾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京釜線龜尾驛前 永生堂醫院 權泰一

玉城面玉成洞 大芚寺 趙炳珪

龜尾 權泰祐

慶北龜尾市場 百貨店 龜尾和信連鎖店 金惠煥

京釜線龜尾驛前 ㈡荷主運送部

龜尾 張允遠

龜尾 朴達夏

朴烋

龜尾 朴喜斌

龜尾驛前 穀物肥料 官鹽小賣 龜尾出張所 高崎合名會社 電三〇番

龜尾 龜尾洋服店 尹彩雲

龜尾市場 富活社 宋[illegible]憲

龜尾面元坪洞 喪中欠禮 李在和

金再俊

龜尾 朴喜穆

海平市場 黃先伊商店

京釜線龜尾驛前 徐丙南熙店

高牙面文里 金象鎬

善山邑 善一印刷所

善山和信連鎖店 電話二五番

善山邑 喪中欠禮 金允培 電話一四番

善山邑東門通 東亞自轉車店 主 金滄東

善山邑 金致龍

善山邑 新生堂藥房 金景培

玉城面草谷洞 朴基萬

全海龍

海平市場 金俊伊商店

海平市場 海平消費組合 振替釜山六五二三番

海平 金相祚

光陽

光陽郡廳 各種團體

光陽邑內 公醫 南宮勳

開龍金鑛

光陽郡玉谷市場 酒造業 肥料 柳浣秀

光陽警察署

光陽郡海苔漁業組合

光陽郡初等學校職員一同

光陽酒造合資會社

甲種料理 芙蓉館

玉洞鑛山事務所

無名氏

骨若面職員一同

津上面職員一同

津上面 金鉉周

玉龍面職員一同

光陽金融組合 理事 辻兼次郎

光陽邑內 禹壽鉉

쇼ㅣ바ㅣ 成發商社光陽分店 鄭成基

光陽撞球場

骨若面協議員 禹東鎭

骨若面桃李里 金斗天

海苔商 孔命甲

崔相基

光陽郡多鴨面新院里 酒造場主 李源生

光陽郡多鴨面錦川里 有志 姜命遠

鳳鳴

平南价川 朝陽面長 金忠熙

平南价川郡朝陽面鳳鳴 醫師 白雲慶

平南价川邑內 利榮酒造場

平南价川郡邑內 朝陽金融組合 理事 桂動峻

平南价川邑內 商會 主 金柱順

平南价川邑內 岐山理髮館 OK理髮館 孫鏞森

平南价川邑內 鳳鳴郵便所長 福田博吉

平南价川郡邑 西鮮電氣朝陽出張員詰所 申永天

平南价川郡邑內 面協議員 李奎華

平南价川邑內 金利俊商店

淳陽

淳陽郡邑平面事務所 職員一同

中部版

特殊한都市簡易校와 近視兒童의救濟策

十四、五兩日八百餘名教員의會合에서 注目되는初等教育研究發表

京城府學務課主催

경성부 학무과주최로 부의초등교육발전을 도모키위하야 소학교 보통학교의 연구발표회는 금년신년벽두인 오는십사일 십오일 이틀동안 오전아홉시부터 부내남대문소학교(南大門小學校)강당에서 전에업던 큰규모로개최하게되엿다 참가교원이 팔백명에달하고 총독부 교육관계자도 참석할터인데 이번 연구발표될 것가운데는 자못 실제교육상에 유익한것이만흔바 특히소학교아동의근시(學校兒童近視)와 그대책에대한 정목무인(正木茂人)훈도의 발표라던지 지(池)훈도의 도시간이학교의특수성에관한 론문등 주목할만한것이만히잇다

平康消防組出初式

【平康】평강소방조에서는 소화십삼년을 마지하야 례년과가티 지난륙일오전십시부터 경찰서광장에서 관민다수 참석하에출초식을 성대히 거행한후 오후두시에는 평강회관에서 축하연까지잇섯다는데 과거일년간 평강소방조에서는 경찰서보안계(保安係)의 후원을바더 가가호호(家家戶戶)를 방문하고 적극적(積極的)으로 방화선전(防火宣傳)에 노력하야 과거일년간화재가 일건도업시 무사하엿다는바 일반은 소방조에대한 공로를 가적지안타고 칭송이자자하다고한다

이 되엿는바 결국은 부내군이 련삼년동안 우승기를 차지하고 동혹일오후 오시에 성대히 대회를 마치엇다

十三日부터 新春擲柶大會

本報金浦支局後援

【金浦】오는십삼일부터 삼일간 김포읍시장(金浦邑市場)에서 김포읍청년분단(金浦金陵靑年分團)주최와 본보김포지국후원하에 신춘척사대회(新春擲柶大會)를 개최하리라는바 회비는 삼십전식이요 상품은 일등에백미두가마니 이등에백미한가마니 그외삼사오등까지 만흔상품이잇서 일반지민을 위안코저한다하야 만히참석하기를바란다고한다

伊川消防組出初式

【伊川】강원도이천군 소방조에서는 지난륙일오전십시부터 례년에의하야 소화십삼년 출초식을이천 경찰서에서 갑배서장(甲斐署長)통제하에 개최하야 관민다수참석한 가운데에 성황을이루엇다고한다

薄給에서醵金獻納

【陵谷】경의선 능곡역전 능곡산업회사 직원직공일동(京義線陵谷驛前陵谷產業會社 職員一同(一圓))은 전지에서 활약하는 황군을 위문코저하는 미충에서 박급임에도 불구하고 출원하모아 현금십삼원(十三圓)을 모아가지고 동회사 농화주임 금지랑우위문(稻川朗右衛門)씨로부터 관할능곡주재소에 위탁하엿다한다

平康地方에 寒波猛威

零下卅二度五分

【平康】신년을 마지한 평강지방의기온은 점점떠러저서 지난사일아침에는 근년저에 최고기록인 령하(零下)삼십이도오분이라는 근년에희유한 치위인데 수도전(水道栓)이 얼어부터서 급수불능으로 일반은 수난(食水難)에 고민중이라는데 압흐로 치위가 더계속될가 염려하고잇다한다

地方人事

▲洪顯曾氏(伊川郡森林主事)新任人事次 本社伊川支局來訪
▲金浦洪氏(同上)同上
▲鄭眞聖氏(同上)同上
▲李琪鎬氏(司法書士)開業人事次 本報楊州支局來訪

金錫九氏獨唱會는 十一日부터兩夜

番外로名唱의贊助出演도잇고 本報讀者는割引優待

우리의 보배로운 문화유산인 구악(舊樂)은 리동백(李東伯)송만갑(宋萬甲)씨등의 눈물겨운노력이 잇건만 혼돈과 쇠잔속에서 압길이 걱정되던터인데 이것을 정리하고 계승하야보겟다고 오래ㅅ동안숨어서 공부를싸흔뒤 얼마전에 서울에 나타나서 이거창한사업에 발을 드려노흔 신진 김석구(金錫九)씨의 독창회는 본사학예부의 후원으로 일월십일일 십이일의량일간 오후일곱시부터 태평통부민관강당에서 연다는것은 몃칠전에발표하엿거니와 이제 하로밤을격한 이독창회는 엇기어려운 구악의 천재가 세상에 나타난다는 기대와축망속에 인기는 용소슴치고잇다 더욱 이날은 후게자의 갸륵한솜씨의 처녀무대를 축수하고 이것을 도우기 위하야 리동백 송만갑 정정렬(丁貞烈)씨등의명창이 번외로 출연하게되엿스니 신춘벽두를 장식하는 호화로운 잔치가 안일수업다 이명창대회의 회비는 오십전균일인데 특히 조선일보독자우대권을 가진사람에게 한하야 이것을 삼십전으로할인하게되엿다

金錫九獨唱會 入場料 五十錢을三十錢으로
朝鮮日報讀者優待券
場所 府民館大講堂
時日 一月十一日·十二日午後七時
一人一枚限

初等學校長會議

京畿道學務課主催로 十六日부터三日間

경기도학무과에서는 오는십륙일부터 사흘동안 도내공사립초등학교장과 각부군(府郡)시학약사백명을 경성중학교강당에 초치하야 교육회의(敎育會議)를열고 국민정신함양과 체위향상(體位向上)에 관하야 협의를하기로되엇는데 일할은다음과갓다

◀十六日 神宮參拜、訓示、指示、注意 ◀十七日 聽取事項、打合希望事項 ◀十八日 卒業生指導에關한協議

新年最初의 京畿道愛國日

十日、神宮에參拜

십일은 새해를 마지한 경기도청의 첫번애국일임으로 오전여덟시반 감자(甘蔗)지사이하청원일동이 조선신궁에 참배하고 도라와 회의실에서 조서봉독식(詔書奉讀式)을 거행하엿다

第六回全江華 蹴球大會盛況

【江華】제륙회전강화축구대회는 본보강화지국후원으로 지난오、

三十錢을強奪한 蘇萊面强盜逮捕

【蘇萊】지난륙일 오후륙시삼십분경 부천군소래면약지산(藥支山)고개에서 강도가나타나 지나가는행인을 칼로위협하고 현금 삼십전을 강탈한사건이잇다 자세한내용을 듯건대 시흥군방면에서 벱내장에와다가 도라가는 장군이삼인이 약지산을 너머가랴할때 별안간 강도가 나타나 칼을두루면서 돈을내라 하므로 두사람은 다라나 그아래동리에 가서 사람을살리라하야 일변소관소래경찰관주재소에 고발하엿스므로 동주재소에서는 시각을 노치지안코 직시 안현리청년들의 응원을어더 범인을 체포하엿다는데 그범인은 본적을 부천군소래면도창리에두고 현재시흥군자면 거모리에사는 강재동(姜在童)이란자로 판명되여당일본서로압송하엿다고한다

한바잇서 최선의로력을 다하기로 약속하얏다고한다

開城在留華僑도 新政權支持宣誓

【開城】남경 함락으로 장정권(蔣政權)이 여지업시 몰락되며 중화민국 림시정부까지 건설된 이때 개성재류 지나인 사십명(사변전엔오백명)은 장정권을리탈하야 신정권에찬가 하겟다는 뜻을 협의하고 지난구일 오후오시 부내 대흥원(大興園)에기자단일동을 초빙해노코 조여해(趙汝海)씨 사회로 정식선언서로써 신정권에 절대합류한다는 성명과함께 금후론 오색기를게양키로 선언한바이엇다

道와府의補助바더 熟練工三名招聘

關係者가京畿道廳에會合 軍需品再請負制決定

전시체제(戰時體制)의 제이년을 마지하는 군수공업(軍需工業)계는 날로 은성하야감을따라 대자본을 가지고잇는 공업자와 중소공업자와의 사이에 괴행경기(跛行景氣)가 농후하야감으로 이것을 시정(是正)하기위하야 경기도에서는 솔선하야 작년말부터 군수품 재청부(再請負)사업을 계획하고 관계각방면과 협의를 거듭하야온결과 작일 윤(尹)산업부장실에서 송(宋)산업과장、 도원(稻垣)경성부 권업과장、 전천(田川)경성철공조합장 이등(伊藤)상공회의소리사등이 모혀 다음과가튼 협의결정을보앗슴으로 과연어떠한성적을 나타낼는지 경성중소공업계를 위하야 크게주목되는바이라한다

一、경성에잇는 철공업자 구십일명으로하야금 재청부를마틀수잇는 설비를 하도록 할것으로써 선반(旋盤) 약륙십대를 이밧면에 쓸수잇게된다

二、정제설비(精製設備)는 공동으로하야 그경비 삼만이천원은 철공조합의 부담으로하고 남어지 삼분지이는경기도와 경성부의보조를 어들것

三、일본내지로부터 숙련직공세사람을 초빙하여 철공조합에 상치(常置)하고 순회지도를하도록할것 한사람월급은 이백원으로치고 잡비아울너 년액팔천원의 경비는 전부도와경성부가 보조할것

四、보통학교졸업생수명을 일년동안 평양병기제조소(平壤兵器製造所)와 평양해군광공지창(海軍航空支廠)에 견습공으로보내여 견습을마친뒤에 경성의각공장에 배치하기로함

三千餘圓을모아서 學年延長을陳情

伊川月岩公普學父兄의熱誠

【伊川】강원도 이천군 동면(伊川郡東面)은 면내호수 륙백여호 인구 삼천여명에 불과한곳이나 향학열은 자못고조되야 다른곳에 못지안흔 교육열에 잇서서는 군내에서 제일가리만한바 현재월암공보교(月岩公普校)는 사년제로서 작추신학기에도 사십명모집에 지원자가 백삼십명에달하야 학교당국에서는 이에대책상 여간한고통이아니엇다하며 더욱이 사년제를 졸업한생도가 다른보교오년에 편입을 희망할때에는 오십원내지 백원까지의 입학금을 학교에납부하게되는 조선이 아니고는 볼수업는 촌농교의현상이므로 동면에서는 면민일동이 대분기하야 작년일월에 교학년연장기성회(學年延長期成會)를 조직하고 학년연장 기금모집을하야 매호당오원 임의당 평균일원식으로 삼천여원을 모아가지고 금번면민대표 김민섭(金敏燮) 리종건(李鍾健)량씨가 지난팔일에 군수를방문하고 눈물겨운 진정서와 삼천원을 학교비에 기부하고 학년연장에대하야 진정한바 잇섯다는데 진정의내용은 동면은 전반적으로편벽된 거리관게상 간이학교 또는 제이보교가 소용이업시 현재 월암공보교의 학년연장과 학급증설이외에 다른시설이 필요치안흐므로 모든교육행정에잇서서 면과타협할것이 업슴으로 금번신학기에는 기어히 학년연장을하야 삼천여면민이 함께깃버하도록 하야달라고한바 군당국에서도 동면면민의 열성에 감복

皇后陛下께압서 御菓子와御歌下賜

戰死한桑本一等兵遺族에게

【春川】금번사변 상해전선(上海戰線)에서 명예의 전사를한 춘천보병(陸軍步兵) 일등병 상본정부(桑本正夫)씨의 유족에대하야 황송하압시게도 황후폐하(皇后陛下)께압서는 어과자(御菓子)와 어가(御歌)를 하사하압서서 지난팔일 오후한시부터 도청회의실에서 관민유력자 다수가 참집하야 장엄한 전달식이잇섯다

長篇小說 林巨正

洪碧初 作 金熊超 畫 【24】

송악산(二十四)

무당과 박수들은 거지반 굿관에 나려가잇고 일보는사람들은 저녁밥을 준비한다리고 한데솟설린곳에 나가잇고 후간들어오는사람이잇서도 볼일보고곳 돌우나가고 가외의 달은사람은 굿당문안에 발을 드려노치아니하야 청석골 안식구가 대왕당을 차지하다시피한까닭에 공논들을 맘노코할수가잇섯다 황천왕봉이가 송교바탕을 주창할때 길막봉이는 대번에 조타고 찬동하고 배돌석이는 송교바탕을 한채도아니요 셋채식이나김억석이 수로 엇지못할테니 부탁해야 쓸데업다고 욱이다가 김천만이더러 부탁하거나 그러치안흐면 황천왕봉이 자기가 청석골 나가서 가저오든는 말에 그러면 될수잇다고 굽히엇는데 유독 서림이가 내처 고개를 외치면서

『지금 천만이를 차저서 부탁해서 천만이가 여기저기서 어더서 장안에서 이산우루 올려보내자면 동안이 얼마나오래걸리며 또 청석골을 나가신다니 나가시는 동안은 얼마안되겟지만 교군군들 들어오는동안이 잇지안소 그동안에 금도군관이 우리 뒤를 발버서 여기를 드리치면 낭패가아니요 늣삽다가는 필경 낭패될테니 한시각이라두 밧비나갈도리를 차립시다』

하고 말하야 황천왕봉이도자기주상을 더고집하지못하게되엇는데 이때마침 김억석이아들이 박게서 들어와서 보은리사는사람이 박게왓다고 녕통하야 황천왕봉이가 반색하고 쪼처나가서김천만이를마저드리엇다

『지네 지금 어듸서 오나』

하고 서림이가 먼저 말을붇엇다

『여러분 올려오신뒤에 보낼사람 보내구 치울것 대강치우구 여기를 쪼처올려 왓드니 한분두 안기 십듸다 그래서 공연이 이리저리 바장이다가 집으루 나려가는길에 부산동서 살인이 낫단 말을 듯구 여러분일이 궁궁해서 집에두 못가구 돌우 올려왓소』

김천만이 말이 끗난뒤에 황천왕봉이가 부산동서 일서길은것을 대충 이얘기하고 겸어가지못할 안식구가 세사람인것을 말하고 송교바탕 셋채를 교군군꺼서 어더달라고 부탁하얏다

『교군바탕은 셋채아니라 여섯채래두 어더드릴수가 잇지만 나주에 발설이 나면 나는 송두서 못살게되지안소』

『송두서 못살게되거든 청석골루 들어오지』

『가만이 기시우 내가 집에 나려가서 엇더케 잘 해보리다 그러구 나는 다시 안올테니 그러이시우』

『교군꾼만 보내면 우리를 차저올수잇슴까』

『이곳당 앞마당에 교군바탕 세채가 와노히거든 어듸서 왓느냐 누가 보냇느냐 뭇지두 말구 그대루 타위가지구 가시구려』

김천만이가 총총이 돌아서 나갈때 서림이가 뒤를 따라나오며 느저서는 소용업스니 그저 아모쪼록 속히 보내달라고 신신 당부하엿다

이때 해가 거이 다저서 매로바위에는 아직 햇발이 남아잇스나 층층대아래 굿판에는 발서 땅검이 다되엇다 그네뛸사람도 훨신 줄고 굿구경하든사람도 만히 빠젓다 굿은 점심전 세거리 점심뒤 널굽거리 모두 열꺼리를 마치고 아프로 두거리가 남은것을 저녁들먹고 마저하기로 되어서 상궁이 굿판에서 대왕당으로 올라오는데 당집안에 잡인을 금하얏다 청석골사내들은 김억석이의 말을 조차서 안식구들만 마루방에남겨두고 박그로 나와서 매로바위미테와 모혀안젓다 길막봉이는여느때와 달음업시 태평이고 황천왕봉이와 배돌석이도 별로 념녀하는빗이 업는데 서림이가 혼자 조바슴을하얏다

『천만이가 산미테 다나려갓겟지』

조금잇다가

『천만이가 저집에 갓슬까』

또 조금잇다가

『교군꾼이 지금쯤 여기 올라왓스면 조켓다』

하고 년해 혼자말을 짓거리엇다。

時日 一月十五日(正午) 十六日(午後一時) 兩日間
場所 淸凉里町綜合滑氷場
第六回 全朝鮮中等對抗氷上大會
第三回 全朝鮮都市對抗氷上大會
申請 一月十二日午後五時까지 京城府鍾路二丁目四六 朝鮮體育會로
主催 白狗滑氷俱樂部 後援 朝鮮日報社

西湖支局 電話一〇五番

(農林省副業課獎勵)
軍手의製造 大成功 小資本 至急
製造家及代理店募集 月收入六拾圓以上百圓確實
軍手는季節없는實用品으로 販路는世界的으로益益擴大한中더구나非常時局을當하야軍需品의一種으로需要는益益增加되고製品은大不足狀態이므로 繁忙는時代에順應하야本社特製最優良機 高速度能率機의 特賣期間을 一月末日까지延期하고 五十臺限하야 特價提供하압고製品은永久히繼續引受하오며 原料는責任配給하압고製造方法은無料敎授하오니 專業又는副業으로經營을希望하시는各位는 勿失好期하시고 賣切되기前에至急申込하시압
案內書進呈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十九番地
合資會社 豐國軍手京城營業所
振替京城二三五九〇番

賦年定期貸付
普通銀行業務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百四十番地ノ一
株式會社 朝鮮殖產銀行
頭取 林繁藏
資本金參千萬圓
日本銀行代理店 日本勸業銀行代理店 朝鮮貯蓄銀行代理店
全鮮各地에支店派出所六十四個所及內地大阪에支店잇合

精神科·神經科
釜山腦病院
院長 医学博士 近郷奨太郎
釜山府富平町四丁目

연주창 약으시 발견!!
淸化丸
京城藥局

就職近道
第三回 生徒募集
大滿測量學院
本學院卒業生 就職率九十%

長篇小說『愛慾의彼岸』大發賣中
朝鮮日報出版部發行

皮膚 チヤージ(차ー지)
◎顔面手足거츠름指間무좀股間습종 여드름、버짐、陰、濕疹、무좀
◎근질근질한皮膚病에곡한병만쓰면 영낙업시完治됩니다
東京神田花房町 山崎帝國堂

●腦의疲勞 ノーシン 明快●

M133
虫退治 マクニン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景品附 舊歲末綢緞布木大賣出
一月十一日 同三十日
正初衣裳次準備에는 只今이最適期!
寅歲의 幸運은! 果然 어느분께로?
每買上 三圓에 景品券一枚進呈(但特價品除外)
一月中無休
大景品
一等 五十圓和信商品券、洋服단스中一品
二等 白銅七艓盤床器一組、洋服地周衣次一件中一品
三等 柱時計一個、純毛메리야스一組、化粧具一揃中一品(以下七等까지無空籤)
景品引換場 二層布木部西北隅
時節映畫及뉴ー쓰上映中(於六層호ー르) 映畫券도進呈
舊正用品大賣出(全店一月十五日—同三十日)
◆舊正用酒盤酒器賣出(地下器部)
◆白餅註文引受(地下食料品部)
◆白川引節餅賣出(地下食料品部)
◆歲饌用品大賣出(地下食料品部)
◆舊正用砂器賣出(地下器部)
◆朝鮮(족기)賣出(五層鮮物產部)
京城 鍾路 和信
電光(3)二八〇〇番

感冒·肺炎
濕布에 エキホス
EXIHOS
純國產品
包裝 一〇〇瓦 二五〇瓦 五〇〇瓦 二瓩
信用잇는藥店에는반다시 エキホス의備品잇合
062423
謹告
近時巴布劑로서 販賣하는것이 때를따라 增加하야 只今은枚擧키어려운狀態입니다。그러나 此等類似品中에는 或은 巴布劑로서 가장有効한 無水구리세린을 含有치안코 安價인他品(水飴等)을 代用한것 或은 含有해도 小量으로서 藥効量에 이르지못하는것 或은 粘調度不良하야 保溫時間이 짤분것들을 보게됨은 甚히遺感으로 생각하는바입니다 따라서 巴布劑購入에際하야는 單純히外觀과價格에만 끌리지말고 巴布劑의 生命인 品質及藥効에 留意하는것이 緊要합니다。
其他모든炎症性、疼痛性疾患에應用하면消炎、鎭痛、解熱의效를奏함
エキホス는主成分으로서純無水구리세린을使用한故로巴布劑로서優秀한效力을發揮함。
發賣元 武田長兵衛商店 鹽野義商店
製造元 二巴合名會社 大阪市東區道修町
A-77⑲

朝鮮國有鐵道貨物運賃改正內容 ❶

鐵道局長 吉田浩

朝鮮國有鐵道에서는 經濟界의 變遷에 伴하야 新時代에 適應할 貨物運賃制度의 確立에 對하야 研究中이든바 成案을 得하얏음으로 客年十二月二十八日附官報로써 發表하고 來二月一日부터 實施키로되엿다

今回의 改正은 貨物等級表의 品類及品目의 整理縮少、等級貨率의 簡易化、車扱運賃計算 最低噸數의 整正 自動車線의 運賃制度 車扱과의 運賃의 通算等 運賃制度의 徹底的 簡易化及 合理化를 主眼으로하고 荷主의 要望하든 宅扱을 新設하는等 鐵道利用上의 利便을 圖한것으로 當局은 昭和十三年度의 出貨豫想에 對하야 約六十萬圓의 減收를 豫想코 잇다 鐵道貨物 運賃制度의 簡易化의 必要는 荷主와 鐵道가 모다 痛感하는바로 鐵道省 滿鐵等에서도 計畫研究中이오 그實施에는 普通의 境遇 相當한 減收를 作[illegible] 當局은 [illegible] 多大한 犧牲을 하고 [illegible] 率先하야 實施한 [illegible] 商取引의 [illegible] 貢獻하는바 至大하리라 [illegible] 이제 改正의 [illegible] 如左하다

第一、貨物運賃制度의 簡易化

一、簡易化의 必要한 理由

現行의 貨物運賃制度는 主로 運賃負擔力과 運送價值에 重點을 두고 制定한것임으로 等級表와 貨率表가 相當히 複雜하고 一般으로는 難解한데 荷主에는 성두른사람이 만타 昭和十一年度中에 京城驛에 貨物을 託送한 荷主의 總延人員은 約五十九萬人으로 其中小口關係가 約五十八萬四千人을 占하야 全體의 九割九分에 當한다。이現象은 大體에 잇서 他驛에도 그러할것으로 輸送量一千萬噸中九百萬噸에 達하는 車扱은 數量은만흐나 荷主의 數는 極히 一分에도 未滿이 다 卽鐵道運送貨物의 荷主의 大部分은 小口關係로 利用上 小口扱이 [illegible] 하고 [illegible] 그런데 이 取扱을 利用하고 잇는 荷主는 主로 小賣商人又는 小規模의 生產者 [illegible] 으로 專門의 [illegible] 又는 事務員의 [illegible] 運送制度에는 全然 [illegible] 貨物의 運送制度 特히 小口扱의 等級貨率은 簡易化하고 누구나 알기쉬운 制度를 하여야한다。

나、小口扱은 一噸當運賃으로는 車扱의 二倍의 收入이 잇스나 其實費를 計算하면 車扱에 比하야 有利치아니한 것을 알수잇다

○一九二八年獨逸國有鐵道의 實費計算의 結果

種別	作業量	支出	%	作業單位當
發着事務 (小口貨物(噸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列車編成（車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列車輸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一〇〇〇	

右와가티 小口扱은 實費計算을 가진限 如斯한方策은 容認할수업다 이에잇서서 鐵道로서는 收益性의 點보다도 차라리 實費를 [illegible] 低減하는方法을 講究하야 小口扱의 制度를 活用하여야한다 其方法으로서는 如左한것이 考慮된다

A、車扱으로하기어려운 貨物에 對한 車扱의 等級及 最低噸數는 될수잇는대로 統一하야 車扱化에 便利케할것

B、小口扱等級은 될수잇는대로 簡單히하고 一口의 重量을 크게하야 [illegible] 輸送할것

C、小口扱의 運賃制度는 될수잇는대로 簡單히하고 受託事務를 簡易히할것

○昭和十一年 [illegible] 如左하다。

扱種別	指數
小口扱	六九四
貨物扱	一〇〇

二、品類及品目의 整理

現行貨物等級表는 二百廿九品類、二千三百六十品目으로 分類되어잇는데 輸送의 實狀에 卽하야 될수잇는대로 品類及品目을 減少하야 改正은 百四十七品類千五百二十六品目으로하고 其表示는 運輸上가장 關係가깁흔 滿鐵과 될수잇는대로 統一을 圖하얏다。

三、等級貨率의 簡易化

特別等級을 [illegible] 廢止하고 普通等級도 半數以下로 減少하얏다。

(一) 等級의 減少

	現行	改正
小口扱 普通等級	七	三
〃 一級割增	五	五
〃 特別等級	十	一
車扱 普通等級	七	一
〃 一級割增	六	三
〃 特別等級	十	一

(二) 普通貨率의 減少

現行普通貨率은 貨率等級主義의 表示에 依하야 一級으로부터 十級까지의 十本으로되고 이것을 小口扱은 一級으로부터 七級까지 車扱은 三級으로부터 十級까지 車扱은 一級과 五級으로부터 十級까지를 共用하고 잇는데 改正普通貨率은 品目等級主義의 表示에 依하야 小口 扱及 車扱에 對하야 各其三本식의 專用貨率을 設하얏다

(三) 特別貨率廢止

特別貨率은 小口扱에 對하야 十一級으로부터 十八級까지의 二十二、二十二級의 十本 車扱에 對하야 十九、二十級과 二十三級으로부터 三十級까지의 十本 合計二十本으로되어잇는데 이 것을 廢止하고 그대신 左의 割引貨率을 設定하고 適當히 하얏다。

扱種別	品目	貨率
小口扱	綿絲、綿織物、魚類、貝類、鹽、蒲鉾類、乾物、乾魚、穀物、小麥粉、木炭、野菜、醬油、味噌、薪、肥料、米糠	二割減
小口扱	鹽、荷造用古袋	三割五分減
小口扱	魚類、貝類、乾菌、乾野菜、醬油、味噌、野菜、筍、桃瓦	五割減
車扱	木炭、肥料、米糠	三百粁까지二割減 三百一粁以上一割減
車扱	鑛、鑛物（明礬石、重晶石、滑石、마네사이트、螢石、石灰石）黑鉛、	二割減
車扱	米、籾、燒酎	百粁까지三割五分減 百一粁以上三割減
車扱	砂利、砂、土	一割減
車扱	備考＝小口扱乾牛皮、乾藻、鹽蒲鉾類、乾瓢는 割引品目에서 除外하고 小口扱魚類中의 其他魚類、車扱大豆粕을 割引品目에 追加하엿다 黑鉛礦、黑鉛、重晶石、車扱鹽	二十粁까지二割減 廿一粁以上二割五分減

(四) 普通貨率의 單位廢止

四、匯扱廢止

現行普通貨率及特別貨率은 各扱共百瓩單位으로 單位를 存하고 잇스나 改正普通貨率은 計算上의 簡便을 圖키爲하야 小口扱은 百瓩單位、車扱은 一噸單位으로하고 모다 單位를 廢止하엿다

現行匯扱에 對하여서는 小口扱普通等級보다 一級低位의 普通貨率을 適用하엿스나 改正은 前述대로 品目等級主義에 依한 表示를 採用하엿슴으로 小口扱三級品을 匯扱으로 一般化하는데 이 適用貨率의 品目은 現行에 比하야 改正小口扱貨率의 等級이 [illegible] 現行에 比하야 貨率이 低下가 되는데 小口扱과 小口扱의 貨率의 差가 [illegible] 以上으로 크게 [illegible] 匯扱의 名稱을 [illegible] 二噸以上이 되는 것은 [illegible] 上이 안되도록 調節하엿다。

五、特別匯扱의 廢止

特別匯扱은 昭和七年 [illegible] 時代에 暫定的으로 不景氣對策의 一助로서 施設한것인데 現在는 當時와 事情을 달리하야 貨車가 不足할뿐아니라 本扱自體에도 缺陷이 잇슴으로 이機會에 廢止하얏다 本扱을 利用한 貨物은 一個年五萬噸內外로 廢止의 影響은 僅少하다

六、小口扱의 列車指定及集配制度의 廢止

宅扱을 新設함으로 本制度는 重複되어 廢止하얏다。

宅扱貨物配達作業 非指定業者에 開放

各地專用車도 丸計責任下開放

指非業者의 協定內容

鐵道貨物宅扱制度는 非指定業者의 死活問題라하야 全朝鮮的으로 各地에서 反對大會가 열니고 그代表委員이 上京하야 當局에 陳情한바잇섯스나 宅扱制度는 鐵道當局의 運輸改善方針上非指定業者의 反對가 잇드래도 反對運動이 奏効될 可望이업고 豫定과가티 二月一日부터 實施를 遷延할수 업는것임으로 키로確定되엿다 그럼으로 非指定業者의 計算機關인 丸計(鮮滿運輸計算保證會社)와 朝鮮運輸同盟會에서는 反對一貫의 態度를 수저어 指、非運送業者의 協調로 方針을세워 一月七日朝鮮運送會社重役室에서 朝運과 如左한 協定이 成立되어 이로써 宅扱問題는 反對運動이 解消케되엿다

協定要項

指、非業者는 互相親善하야 融和協調하는 精神에 基하야 左와 如히 協定함

一、朝鮮運送株式會社가 朝鮮總督府鐵道局으로부터 請負한 宅扱貨物配達作業을 非指定業者에 開放함

一、非指定業者中 右取扱을하는 店은 丸計의 責任으로 推薦하는 店에 限함

一、右責任을 保護하기 爲하야 金貳萬圓을 朝鮮運送株式會社에 積立함

一、各地責任付配裁專用車도 丸計責任下에 非指定業者의 利用에 開放함

一、兩社計算部는 協調하야 新店의 防止 不良店整理의 徹底를 期하야 業界改善을 圖함

聯合會議에서 協定承認

潘丸計支配人談

指非運送業者의 協定은 鮮滿運輸同盟會이 京城商工會議所會議室에서 九日午前十一時半부터 開催되어 鮮滿運輸計算保證會社重役會、運輸同盟理事會、支部長會의聯合會議에 充分討議한結果 朝運과의 協定을 承認通過하얏다 宅扱制度는 鐵道當局의 大方針으로 實施키로確定되엿스니 反對만하얏자 所用이업슴으로 朝運과妥協케된 것이다 地方業者間에 多少不平이 잇다 時局에서 今回는 內地商의 [illegible]

獨逸에서 牛皮注文

支那語印刷物로 朝鮮產品宣傳

日獨防共協定의 締結이 去益堅固케되는이때 兩國親善의 시작 으로 新年初에 獨逸로부터 快 뉴스가 [illegible] 市大貿易商하인리히·푸란케商會로부터 八日朝鮮貿易協會에 朝鮮의 牛皮百匹(五百枚)의 買付申込이잇서 同協會를 欣喜케 하얏다 本年은 牛皮의 需要가 軍需關係其他로 만허 到底히 現在의 生產力으로는 이 注文에 應할 수업스므로 同協會에서는 六個月間 猶豫라는 條件附로 引受한 다고 回答하얏다

總督府에서는 朝鮮產品의 北支進出을 企圖하고 朝鮮內業者와 連絡을取하야 明年度에는 北支各地에서 見本市를 開催할計劃인데 이와同時에 朝鮮產品과 朝鮮事業을 北支人에게 周知徹底케 하고 取引上의 効果를 擧키爲하야 從來邦文만으로 印刷하던것을 朝鮮產品名과 朝鮮內宣傳印刷物을 支那語로 飜譯하야 頒布키로되어 同時에 總督府作製映畫도 支那語의 타이틀을 挿入하야 北支方面에 向하야 크게 貿易促進을 圖키로되엿다

總督府豫算의 半인 尨大한 鐵道局의 豫算

新規事業費만 四千八百萬圓

十三年度二億七千餘萬圓!

昭和十三年度朝鮮鐵道總豫算은 二億七千餘萬圓으로 總督府總豫算額의 半分을 占한 尨大한것이다 臨時費中 新規事業으로서 四千八百二十三萬圓을 計上하고 大藏省의 諒解를 得하야 議會에 提出할터인데 이新規事項의 內容은

一、十三年度부터 十五年度에亘한 三個年繼續新規事業인 京義線復線工事費三千九百九十萬圓의 十三年度配當 一三、〇〇〇千圓

一、車輛費 一九、五〇〇
一、建設費 一一、五〇〇
一、工事關係事業繰上 一六、八〇〇
合計 四八、〇〇〇

此等新規事項은 모다時局關係로 緊急不得已하야 年度繰上을 行한이것이다

京義複線等

東拓의 朝鮮收益 稀有의 增益

下期六百五十萬圓

東拓의 朝鮮收益은 重大하다하야 京城商議에서는 來十二日午後一時부터同所에서 右에關한 懇談會를 開催하고 總督府와 京鐵道로부터 關係官이 出席하야 同令의 內容에 對하야 說明하는同時에 業者와의 質疑應答이잇스리라한다

東拓의 昭和十二年下期業績은 朝鮮支社關係分은 이미本社에送付하고 本社에서 査定中인데 朝鮮關係는 東洋의 大宗인 農業收入이 近年에 업는 增收를 招來한 一方金融業務도 貸出額은 그리增加되지 안핫스나 事變影響은 回收決算面을 惡化케하지안코 回收益增이다 東拓支社로서는 稀有의利益이 되엇다 東拓의 下期業績은 本社關係를 涉覽하야도 前期보다는 良好하야 或은 二分의 增配를 行하리라고 期待된다

上期石油販賣 數量配定

自由移入은防止!

朝鮮石油業令에 依한 昭和十三年度 石油販賣配定은 十日總督府로부터 如左히 一月부터六月까지의 分을 發表하얏다 右配定數量의 合計는 前年同期에 比하야 絕對數字는 增加되엇스나 時局關係로 自然增加를 豫想하고 消費節約을 發해 보앗슴으로 相對數字는 도리어 減少되엇고 또 一月부터 六月까지로 一年을 二期로 分한것은 市價의 安定을 企圖한때 문이다 時히 今回는 內地商의 移入에 잇서 從來와한것 以外는 自由移入은 防止키로된바고 配定은 如左히다(單位키로리틀)

揮發油	六三、	五三六
燈油	四四、	三五五
輕油	一三、	一三一
機械油	二一、	一一七
重油	六九、	三七七

金使用制限懇談會

金及白金使用制限에 關한 朝鮮產金令은 去一月四日公布卽日實施되엇는데 業者에게 及하는影

今年初入超

一千六百五十四萬圓

【東京電話同盟】本年一月上旬對外貿易概算額은 如左하다 (單位千圓)

輸出	一二、一三四
輸入	二八、六七八
計	四〇、八一二
入超	一六、五四四

產金暫定資金 取扱方法決定

利率은年五分乃至七分

또一千三百萬圓受入

審查委員會設置

產金增產資金運用에 關한 協議會는 旣報와가티 八日午後부터 總督府에서 民間側으로부터 殖銀 野田理事、東拓 佐藤金融課長以下 關係者가 出席하야 殖產局長 石田鑛山課長等을中心으로 愼重協議한結果 如左히 暫定期間中의 運用方針을 決定하얏다

一、產金增產 低資의貸出에 關하야서는 朝鮮總督府內에 關係者를 網羅한 審查委員會를 設置함

一、右審查委員會의 審查에 依하야 融通條件(金額과金利其他)을 決定하고 東拓及 殖銀은 貸出을 代行함

一、融通利率은 年五分으로부터 七分까지로하고 大體 五分、六分、七分의 三組로 分割豫定이며 融通對象의 組別은 審查委員會가 決定함

一、融通은 早急히 處理하고 暫定貸出의 立場上 期間은 本年中으로되고 新會社에 引繼할터이다

一、旣受入低資는 東拓、殖銀合하야 二千萬圓인데 이것은 大體 本年四月까지에 消化하고 更히 約一千三百萬圓을 取入할豫定

以上이 協議會決定事項中의 主要한것인데 要컨대 總督府內에 新設될 審查委員會가 低資融通上 絕對한 權限을 把持한터로 이 委員會의 構成에 深甚한 關心을 가지게되엇다

寸鐵

○全朝鮮的으로 反對運動이 熾烈튼 宅扱問題는 結局 朝運과 妥協으로 終局

○大勢에 順應하야 이러케 指非協調가 되엇이면 애당초에 妥協으로 一貫함이 낫지안엇슬가?

○反對結果가 妥協인가? 妥協키爲한 反對이엇든가?

○丸計、同盟會幹部들의 業者 指導精神이 果然適宜하얏다할가?

○宅扱問題는 그러타하고 그보다더큰 小運送統制問題에잇서서도 이러한 그릇된 方針으로 臨할가 危惧

株式 反弛이나 底堅

今日의 市勢（十日）

前場反弛

昨今 休會中의 外國에 뒤니어 細商株式高 米棉高價維持로 株式中心의 買氣는 依然不衰하야 東新後場의 軟化傾向이 다시 新도 樂觀狀이 되엇스나 今朝寄付는 鐘紡低落을 頭로 軟化하야 東新은 弱商하야 寄賣薄이 되엇스나 市勢는 比較的 底堅味를 不失하야 東新百七十一圓二、鐘紡二百七十九圓五、日產八十七圓一、朝新三十七圓五로 前場을 마치게되엇다

後場底堅

後場은 東新三 低 鐘紡四 低로 少弛寄付後 底堅

分岐는漸接近

東新이百八十圓五毫로서 波瀾後落된後 反動的反動으로 反 合을 繼續한것이 어디二十日이라 時間的으로보면 今後四、五日을 要할것이 다시어느方向으로든지 一홉을 보히든 後 期待되나 主力株는 任手의 氣迷、環境不透明으로

主力株不冴!

增稅에 依한 波瀾도 인플레豫想과 英米等의 重觀點으로 買氣 再燃하야 悲觀人氣를 一掃하고 新株中心의 買人氣는 相當한바 잇섯스며 休日中의 外電도다시 反發로 支那陣營內의 和平論擡頭說과함께 氣配는 强하얏스나 一部에는 蔣介石의 聯蘇强化策 動도 잇다고하며 政府에서 現在審議中인 重要國策의 全貌도 긋즈입것等 아직積極態度에 나서기는 時期尙早의 感이 不無하야 雜株에는 거의 買物이 업는 底堅 好調임에도 不拘하고 主力株는 反弛裡에 不活狀을 보히게 되엿 다 從來에 指摘한 바와가티 主力 株對雜株開稍狀은 當然 잇고야 말것이므로 主力株가 軟調를 보 고잇는데에 雜株의 價位上昇이 實 現되면 雜株支援으로 主力株도 整理가 完了를 기다려 다시再進할 序幕가 될것이니 이때에 비로소 百 花繚亂의 活躍時代를 再現할것이 아닌가하는 說이 多하다 이런意 味에서 主力株의 急速한 活躍은 期待難이나 그러타고 過히 突込 하야 賣하는것도 큰妙味가 업서 大局은 꿋꿋이 押目買가 妥當치 안흘가 觀測되고잇다

今日財界十日

◆米 (單位錢) 今日後止 比前日

仁川期米先限	三三、[illegible]		
大阪期米先限	三三、[illegible]		三高
京城白米(一等)	[illegible]		不變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二低
正租一斤價三等	[illegible]		
神戶現金一錢	[illegible]		不變

◆株 (單位十錢) 今日後止 比前日

朝新	[illegible]	二高
東新	[illegible]	五低
鐘紡	[illegible]	八低

◆商品 (先限單位錢) 今日後止 比前日

綿絲	[illegible]	一〇低
棉花	[illegible]	
人絹	[illegible]	三低
砂糖	[illegible]	不變

市場六感

㊑……政府의 重要國策發表가 遲延되어 여름 念慮하야 企業은 躊躇하는편이잇스나 ▲이外에는 悲觀된 米國景氣까지도 重慶의 行進曲에따라 漸次 回復되어 四圍에 별스런 惡材가업스므로 도 不拘코 ▲主力株의 一角은 괴리를 풀어도 終始不冴 ▲主力株의 保合도 벌서 二十日 이제 分岐는 가까웟다 ▲步調의 軟味로는 小口買方의 投物은 고히얼고 도 實整치려는 傾向까지잇스나 ▲先物氣配한 東新의 踏步는 東株自體의 整理와 雜株의 追從을 苦待 ▲諸株步調가 나란히

㊐……政府의 買上만은 不遠하게되면 必定 理想의 곳으로 再進할 順序인듯 ▲다만 그時期가 언제인지 問題이며 高低先後가 問題……（金剛城）

國債保勢

利喰賣로

【東京電話同盟】金融情勢의 良好로 國債買氣는 意外 推移이엇스나 連日買進된後이므로 部分的으로 利喰氣分도잇서서 第一回五分 十錢高에 對하야 佛貨는 十錢低가되고 其他는 全혀 無變化이엇다

期米 阪地高나 伸惱

前場續强

東京三十五圓十八錢인 九丁高 으로 一休今朝에 阪地先限三十四圓九十錢인 九丁高 八丁突高로 中은 一圓九十九錢인 六丁高 當限은 一圓八十六錢인 四丁續高 先限은 丸帛의 一千三百石의 買物이 잇는 一方 外國의 一千餘石의 賣物이 [illegible]

後場伸惱

後場은 三十二圓二十二錢인 二丁低로 始場한 後 二節四十一錢 三節四十錢의 [illegible] 反高이엇스나 다시三十九錢 十五錢에 反落하야 阪地高에 不 拘코 伸惱이엇다

高因은買上?

新甫三月限은 [illegible] 一時는 伸惱의 商氣를 보이엇스나 元來 春高豫想의 買氣가 潛在한 [illegible] 一方 內地米賣收高의 百萬石 減收說 又는 政府米의 買上으로

正米 定期高로 躍騰

京城躍騰 產地賣惜으로 市中賣物減少를 보이고잇는이때에 各地定期의 一齊로 先高期待에 依한 買氣熾烈로 市價도 三十錢高로 躍騰 三一、七〇 ⓔ三等三一、九〇 四等 三一、二〇

仁川大暴騰 政府買上近迫說로 東地는 依然이 殘留를 繼續하야 出廻薄이되고 淸算의 連日昇進을 보고 市中賣物은 皆無의 狀態로 資態暴騰하야 精米[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先	中	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高價에 買上難

新春早期以來 日淺함에 不拘하고 벌서 八十餘丁의 騰貴를 보히엇다 此는 全혀 買上期待의 買氣旺盛으로 政治的 根源에 立脚하기도 하니 一昨日頃에는 買上發表가 先取되다 東京勢가 먼저 騰貴에 發하여 地방市場도 追從하야 全國買方의 觀을 呈함에 至하엿다 天下의 觀은 [illegible] 그러나 此에 一考를 要할것은 買上이나 又는 [illegible] 問題인데 買上이 나하면 殘存數에 依하야 [illegible] 反動的 價格의 最高公定米價의 一割以下가아니면 買上法案에 依하야 [illegible] 反面으로 此는 漸次 [illegible] 十三圓四、五十錢에 該當하게되 므로 目下當局의 買上을 할수 假에는 到底히 應急買上을 할수 가업슬터이라 買上도 此等 高價에는 政府로서 買上을 躊躇 하지안흘수업스리라고 云云

大邱奔騰

政府買上은時期 [illegible] 十錢高의 [illegible] 九八錢

釜山昇進

[illegible] 三、二〇 ⓔ一三、一〇

群山少堅

政府買上期待人氣가강하고 產地도 先高豫想하고 賣物이적어 休日後의 朝定期高를보고 適價觀의 買氣가旺盛하야 市價도 十錢高騰을 보엿다 一、二〇 四等三一、〇〇 一等 白米一二、七五錢

木浦保合

休日後의 今朝는 東地出廻로 三十五圓錢으로 調이엇스나 市中은 買上發表時 期接近豫想으로 貨物薄이오 各 地期米의 氣分을보앗스나 此際 은 適價라고 入注가 적기때문에 飛付買物이 적어 市價도 前 價同樣으로부터 小堅調이엇다 ⓔ 銀坊主 三等 三一、五〇 四等 三一、〇〇 一等白米 一三、〇〇 五

期米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 [illegible]

株式 期米 玉 柳來恒取引店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益 京城 金益證券 仁川 益康

株式 朝取短期

東新、新東、同新、紡績、鐘紡、大新、東新、日產、同新、新帝人、人同、新拓、新朝、石朝、日魯 前場·後場 寄付 大引 高價 低價 [illegible]

◆朝取短期主要取組高 賣方 買方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合計 累計 [illegible]

◆東京短期 東新、新東、新大、鐘紡、日產 寄付 大引 高價 低價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賣方 買方 [illegible]

◆東京現株 東株、東新、朝鮮、東拓、大新 [illegible]

◆大阪短期 大新、新大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當 [illegible] 出來高 合計 本期總計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 ◆大阪短期 [illegible]

◆日產 鐘紡 日產 ◆實定 代引 日步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 ◆大阪長期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前場 後場 一二三四五六七八九十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大邱期米 前場 後場 [illegible]

◆釜山期米 前場 後場 [illegible]

◆群山期米 前場 後場 [illegible]

◆木浦期米 前場 後場 [illegible]

◆大阪期米 前場 後場 [illegible]

◆東京期米 前場 後場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神戶 下關 名古屋 [illegible]

京城物價（十日）

◆白米（升、單位錢）[illegible] ◆肥料 ◆紙物（單位錢）[illegible]

◆京城燃料（京城燃料業者組合協定價格）[illegible]

◆染料 ◆海產物（單位錢）[illegible]

◆木材（上）◆牛皮 ◆人絹 ◆毛絲 [illegible]

海外經濟（八日）

◆日本銀行券 ◆朝鮮銀行券 [illegible]

◆阪神鰯粕 ◆阪神鰯油 ◆日本麥粉市況 [illegible]

鰯油粕·粉麥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illegible]

金銀價

◆京城中金銀價 ◆東京金銀價 [illegible]

對外爲替

正米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綿絲

◆大阪綿絲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illegible]

生糸

◆橫濱生糸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東京砂糖 [illegible]